

문화 서울



국립창극단 <리어>

물이 차오른 무대, 인간의 욕망과 삶의 비극이 뒤엉켜 거세게 소용돌이친다.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으려 리어와 세 딸, 글로스터와 두 아들이 벌이는 소란은 끝내 바다에 이르러 잦아들고, 한줄기 안개로 허공에 흩어진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을 다시 쓴 배삼식의 대본에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준 한승석과 정재일의 음악, 감각을 깨우는 정영두의 연출과 안무가 더해져 완성된 창극 <리어>가 재공연 무대에 오른다. 살아내기 위해 저마다의 욕망으로 애쓰는 무대 위 인물 한 명 한 명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02.2280.4114



1

2

2024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서울에서 활동하는 극단의 우수한 연극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가 3월 한 달간 열린다. 1차 공모를 통과한 7편이 경연을 열고, 우수작 1편이 서울을 대표해 대한민국연극제 본 경연에 출품된다. 3월 2일 개막작으로 고전 '장화홍련전'을 현대화한 극단 민예 <장화홍련 실종사건 개정판>이 공연되며, 브레히트의 원작을 각색한 극단 아트스퀘어 <칠죄종> 없는 이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서(6일), 비리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소시민의 이야기를 다룬 극단 명장 <오시비엔침>(9일)이 이어서 무대에 오른다. 다문화 가정의 갈등을 다룬 극단 프로젝트그룹 연희공방 <우리 집>(13일), 자식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학갑 선생의 모험을 풀어낸 극단 대학로극장 <임금알>(16일), 실종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극단 광대모듬 <1989년 서해안 섬마을에서 발견된 시체는 어떻게 처리되었나?>(20일)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전쟁통에 간첩이 되어버린 소년의 드라마를 담은 공연창작소 공간 <소년 간첩>(23일)이 폐막을 장식한다.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중랑구민회관 대극장 | 02.765.7500

**수림뉴웨이브: 독파**

전통 창작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수림문화재단 '수림뉴웨이브'가 스무 번의 목요일 저녁, 스무 명의 예술가를 초대한다. '독파'라는 주제 아래 자신의 음악세계를 공고히 다지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연주자의 공연을 2월부터 4월, 8월부터 10월 사이 각각 10회씩 선보인다. 3월에는 정가객 안정아, 대금 연주자 유홍, 타악 연주자 황민왕, 민요 소리꾼 공미연이 각각 무대를 선보인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5월 2일과 10월 31일에는 넷워킹 프로그램 '수림아고라'가 열린다. 관심이 있다면 미리 챙겨봐도 좋겠다.

10월 31일까지
김희수아트센터 | 02.962.7911

3

4

윤복희의 가수 인생 70년 콘서트 <삶>

연극·영화·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무대 위 살아 있는 전설 윤복희의 데뷔 70주년을 기념한 콘서트가 열린다.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 중흥무진한 윤복희의 삶을 오롯이 담은 공연으로, 대중에게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는 '한오백년', '여러분' 등 대표곡을 선보이며 추억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3월 23일 오후 7시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 02.2049.4700



**제기동 감초마을
현진건 기념도서관 개관**
동대문구 제기동에 새 도서관이 들어섰다. 지역 내 아홉 번째 공공 도서관인 제기동 감초마을 현진건 기념도서관이 문을 연 것. 지역 독서문화를 부흥하기 위한 복합 문화시설로, 주차장(1층), 마을카페(2층), 경로당(3층), 현진건 기념도서관(4~5층)으로 구성된다. 제기동에서 생을 마감한, 소설 '운수 좋은 날', 'B사감과 러브레터' 등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현진건을 기리며 개관한 곳으로, 도서관 내부에는 그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다. 총 88개 좌석, 30,757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에는 인문학 강좌 '현진건과 동시대 예술작품-시대의 아픔속에 꽃을 피운 예술가들'도 열린다.

5



첨단기술로 재구성한 K-전래놀이, 광화문 빛의 놀이터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일대(세종문화회관 앞)에 '빛의 놀이터'가 조성됐다. 서울 곳곳에 재미를 붙여넣는 '편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방치기·땅따먹기·달팽이 놀이·방방이(트램폴린)·LED 시소 등 전래놀이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만든 체험거리다. 운영은 5월 6일까지.



《단지, 농담이 지나치네요》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서초구 예술의전당 앞 지하보도)에서 열리는 《단지, 농담이 지나치네요》전은 사소한 순간에 비롯한 가벼운 '농담'이 동양화 장르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실험하는 전시다. 창작의 시작점이 되는 언어와 아카이브를 결합해 청년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고민과 동양화 장르를 다채롭게 조명하며, 서로 다른 고민이 교차하는 세계를 주목하고자 했다.
3월 17일까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02.3477.2074

7



8

사카모토 류이치 트리뷰트 콘서트
음악감독 이경선을 중심으로 결성한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가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1주기를 추모하며 헌정 음악회를 연다. 국내 관객에게도 잘 알려진 류이치 사카모토는 지난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제천영화음악상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생전 그가 직접 쓴 악보를 바탕으로 18곡을 꾸렸으며, 린츠 주립 오페라극장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는 한주현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3월 24일 오후 7시 30분 | 롯데콘서트홀 | 1544.3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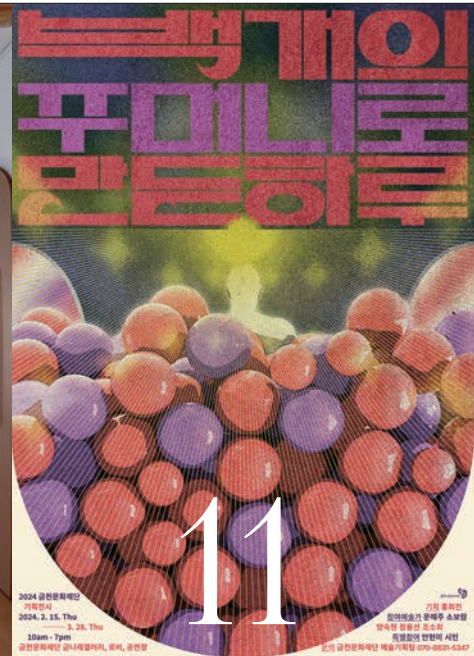
9



《변화의 시작, 종로모던을 기록하다》

종로문화재단 무계원 행랑채에서 근대 종로의 모습을 담은 《변화의 시작, 종로모던을 기록하다》를 선보인다. 전시는 '종로모던'을 주제로 개화기 종로의 문화·사회적 변천사를 보여주고자 한다. 주제별 영상(종로의 거리, 모던한복, 종로의 극장, 탑골공원, 청와대, 종로시인 윤동주 등)과 함께 종로문화재단과 '중앙SUNDAY'가 공동 기획한 기사를 재구성해 과거의 종로를 만날 수 있다.

3월 31일까지 | 무계원 행랑채 | 02.379.7131



11

2024 금천문화재단
기획전시
2024. 2. 15. Thu
3. 28. Thu
3:00pm - 7pm
금천문화재단 금나래갤러리, 문배, 금천구

문의: 02-8831-5347
관객지원금: 100만원
전시료: 100만원
전시료: 100만원
전시료: 100만원

《백 개의 주머니로 만든 하루》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나 공통으로 보내는 '하루'를 주제로 펼치는 전시.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세계에서 현대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문화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하루'에 관해 참여 작가와 심라상담가, 철학자 등과 이야기를 나누는 부대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3월 28일까지 | 금천구청, 금나래갤러리
070.8831.5347

10



돈의문박물관마을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다양한 미디어 아티스트를 조망하고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아티스트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시각예술가인 디기아라파를 소개한다. 작가는 청룡의 해를 기념해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봄의 영원성을 바라며 시각적 이미지를 띄웠다. 《Presenting History Through The Clouds》라 이름 붙인 이번 전시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영 시간 중 연중 상설 전시작인 이이남의 작품과 함께 상영된다.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삼양동화>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입체 동화 낭독 뮤지컬 <삼양동화>가 열린다. 서울어린이연극상 단체 부문 관객인기상을 받고, 2022 아시테지 겨울축제에서 대표 공연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는 작품. '춤추는 신데렐라', '아빠돼지 삼형제' 등 고정관념을 털고 동시대적 관점으로 각색한 고전 동화를 보여줘 어린이는 신나게, 어른은 공감하며 볼 수 있는 공연이다.

3월 15일과 16일 | 노원어린이극장
02.2289.3453



12

《모네와 인상주의 레플리카》

강동문화재단은 인상주의 명화를 복제한 레플리카 전시를 통해 특유의 질감과 색감을 생생하게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 클로드 모네를 비롯해 오귀스트 르누아르·에드가 드가·카미유 피사로·폴 세잔·빈센트 반 고흐 등 인상주의 대표 화가들이 그려낸, 빛과 색채의 향연이 펼쳐진다.

3월 12일까지 | 강동아트센터 아트랑
02.440.0500

Claude Monet, Poppy Field, 1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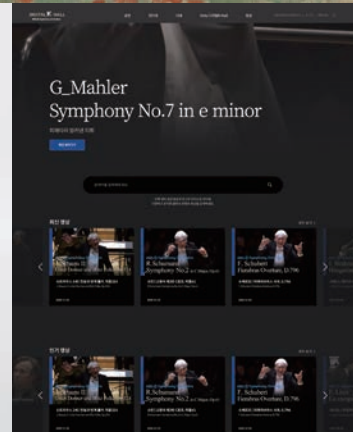
13

어린이를 위한 서울공예박물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서울공예박물관은 어린이를 위한 꼬마 박쥐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접목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 '비밀요원 CMI: 밤이와 함께 비밀코드를 해결하라'를 운영한다. 활동지와 수사대 카드 등이 담긴 귀여운 가방을 메고 박물관 수사대의 주인공이 돼 전시실을 탐험해본다.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매월 2·4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서울공예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14



KBS교향악단 디지털 K-홀

2022년부터 온라인 콘서트홀 '디지털 K-홀'을 서비스하는 KBS교향악단이 매주 5편 내외의 영상을 업데이트하며 꾸준히 구독자를 모으고 있다. 내부 아카이브에 축적된 1천여 편의 실황 연주 영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시작해, 현재는 실황 영상만 아니라 다큐멘터리·인터뷰·뮤직비디오·플레이리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800여 편을 온라인에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만날 수 있다.

digitalkhall.kbssymphony.org



16

15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

충무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의 아시아 초연이 막을 올린다. 2017 토니상 6관왕을 자랑하는 듀오 파섹 앤 폴(Pasek and Paul)의 걸작 <디어 에반 헨슨>은 가정·학교·회사 등 사회와 집단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워싱턴에서의 초연 당시 무대와 꼭 닮은 국내 최정상 배우들이 캐스팅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반 헨슨役に 김성규·박강현·임규형, 하이드 헨슨役に 김선영·신영숙, 코너 머피役に 윤승우·임지선, 조이 머피役に 강지혜·홍서영 등이 호흡을 맞춘다. 한국 프로덕션의 연출은 박소영, 음악감독은 양주인이 맡았다.

3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1577.3363

17

《최옥경》

새롭게 단장한 국제갤러리 한옥 공간에서 최옥경의 작품을 소개한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개인전 《낯설은 얼굴들처럼》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프레젠테이션 전시. 한국 추상화를 대표하는 작가의 대담한 필치와 강렬한 색채를 살펴볼 수 있다. 지난 전시에 포함된 일부 종이 작업과 크로키(인체 드로잉) 등 21점을 선보인다. 특히 작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종이 드로잉 작품에 주목할 만하다.

3월 3일까지 | 국제갤러리 한옥 | 02.735.8449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개막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문화가 함께하는 영등포구 대표 축제, 2024년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봄꽃소풍>이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여의서로(국회 뒤편) 벚꽃길에서 진행된다. 벚꽃 개화 시기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19

GOODS IS GOOD 굿즈이즈굿

콘텐츠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 시대.

영상·이미지·스토리 분야의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생산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행사가 열린다.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 스튜디오, 유튜버 등 400여 명 크리에이터와 IP 기업이 참여해 콘텐츠와 굿즈를 소개하고, 주제관, 기획관을 마련하며, 이벤트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펼친다.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 SETEC | 02.2602.8601

GOODS IS GOOD
굿즈이즈굿
SETEC
컨벤션센터



2024. 03. 21. → 24.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VR 전시

지난 전시를 온라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VR 전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박물관 누리집 내 상설 전시 혹은 종료된 기획 전시를 선택하면 포스터·리플릿·도록 등 정보와 함께 '온라인 전시VR 보기'로 접속하면 된다.

hangeul.go.kr

20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20

SCENE



COVER STORY

스무 살 서울문화재단의 초상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시민과 예술가 곁에 함께한
서울문화재단의 면면을 담았다.
문화로 활력 넘치는 일상, 그 수많은 순간을
천천히 감상해보시기를.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08

특별 대담

공유하고 협력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을 말하다

14

서울문화재단 20년

2004—2023

서울, 서울문화, 서울문화재단

26

추억 한 장

나와 서울문화재단의
열 가지 이야기

FOCUS

30

예술가의 진심

최태지가 전하는 한국 발레를 향한 진심

36

예술인 아카이브

김두봉

38

예술인 아카이브

권해원

40

페이퍼로그

융합예술팀 곽해리나,
새로운 물결에 몸을 싣고

42

인사이드

대학로극장 퀴드
2024 기획 프로그램

44

인사이드

시내 곳곳이 무대라면,
서울스테이지 2024

46

인사이드

제2회 서울예술상
수상자 발표

48

트렌드

문화 향유와 관광,
두 마리 토끼 잡는 뉴욕

ASSOCIATED

52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수묵화 거장' 박대성의 독심

54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줍는다

말을 본 사이, 말본새

— 입찬말과 에멜무지로

56

걷다가 마주친 춤

'댄서'라는 직업

59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언제 어디서나 '육재비'

62

컨트리뷰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2월 29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2004년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은
이제,
앞으로의 20년을
고민하고 있다.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창기 대표이사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날짜 2024년 2월 8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대 대표이사),
이창기(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공유하고
협력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을 말하다



2004년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의 정책 목표는 문화도시 서울의 창조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로 삼은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 환경 조성, 네트워크 기능 강화, 시민문화향수 확대는 20년이 지나는 동안 더 촘촘하게 다져지면서 지금도 재단의 주요한 방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 조성,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가치 확산 등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발현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문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이 더해질 수 있던 건, 오랜 시간 커져이 쌓인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1년부터

재단 대표이사인 이창기 대표의 대담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문화예술 전문 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담아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초대 대표이사로 재단의 기틀을 만들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배우로 생활하셨고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활동하시다 내려 놓으셨는데 다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인촌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팔자타령을 해야 하는데요.



재단 3년, 문체부 3년, 그리고 또 다시 행정 일을 하게 됐네요. 그 외에 문화특보나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했지만, 200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후에 다시 연극을 하면서는 이쪽 일을 잊어버리고 관여하지 않았습다. 그래도 서울문화재단은 자전거 타고 청계천 건너편으로 많이 지나다니긴 했지요.(웃음) 세월을 따져보면 문화계에서 벌써 20년이 넘었으니 오랜 시간을 문화예술행정 안에 있었구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창기 재단 대표로 활동하셨을 때와 중앙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상상하고 고민했던 것과 규모도 체계도 다를 테니까요.

유인촌 재단에서 일할 때는 정치 환경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앙정부로 넘어오는 순간 정치 한복판에 던져지고, 재단에서 일할 때 느끼지 못한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일도 많아요. 큰 의미를 두지 않던 것들이 굉장한 의미로 커지기도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외적 요소들이 담기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일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일이어서, 재단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면면을 가지고 있죠. 장관으로 일하는 게 두 번째인데, 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창기 20년 전과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술 현장에서 서울문화재단을 바라볼 때 느끼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유인촌 일단 조직 자체가 커졌죠. 그때는 직원이 37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나요?

이창기 전체 인원은 300명 정도 됩니다. 재단 설립 때보다 10배 가까이 규모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인촌 그러니까요. 저는 직원을 채용할 때 모두 직접 인터뷰해서 뽑았어요. 정관·조례 등을 처음 만들 때의 복잡한 작업을 같이 했죠. 지금은 공간도 많겠지만, 그때는 작은 사무실 두 개에서 출발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보람도 느낍니다.

그때 제가 청계천 본관 건물을 만들어놓고 나왔어요.(웃음) 지금 들여다보면 일하는 범위도 넓어졌고, 직원의 전문성도 높아진 것 같고, 그만큼 세분됐다고 봅니다. 처음 살림을 꾸리고, 직접 사람을 뽑고, 책상부터 배치하면서 시작한 곳이라 여전히 애착이 많이 가네요.

문화예술과 시민, 예술가를 연결하는 '예술공간'

이창기 말씀처럼 초창기 당시에는 청사조차 없었는데요. 지금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공간이 올해 개관하는 곳까지 포함하면 20개가 됩니다. 그만큼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공간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 거점에서 예술가·시민을 대상으로 특화된 수요자 중심의 문화 활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공간은 일차적으로 창작 환경이 되니,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예술가들에게 지원금보다는 공간을 지원해주는 이야기가 많이 했어요. 직접 지원도 좋지만 사람, 환경, 공간, 홍보마케팅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창기 성북구 삼선교 사거리에 새로 생기는 서울연극창작센터의 경우도 대학로에 있는 서울연극센터와 달리 공연장·스튜디오 등을 갖춰 연극 창작과 발표, 연극인의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올해 강북·서초·은평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생길 예정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예술공간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공간이자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인촌 그런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을 활성화할 방법은 문화예술밖에 없거든요. 예술공간이 만들어지면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서울시가 자치구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문체부는 광역시·도에 그런 공간과 단체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에 예술 무대를 만들어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이동하면 좋겠어요. 지역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창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인데 시행 과정이 쉽진 않겠어요.

유인촌 단체를 관리 운영하고 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담하는 기획자를 붙여주려고 해요. 올해 예술단 10개를 만들어서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도 고려하는 거예요. 계약 형태로 운영하다 자리잡으면 단원으로 활동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공립 타이틀을 주고 활동하게 하고 공연할 때는 출연료를 주면서 안정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예술가에게도 지역민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일이 될 거고요.

이창기 재단 창립 시절에도 서울연극극장 창동 같은 공간을 통해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시도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촌 재단은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 재단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예술가에게 필요한 공간을 지원하면서, 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건 좋은 정책이죠. 재단은 어디선가 건물을 더 많이 얻어와야 합니다. 서울시장님을 더 설득해야 해요.(웃음)

시대에 발맞춰 다각화하는 '예술지원'

이창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늘려 지원을 확대하되, 지원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사후지원제도 같은 사업을 강조하셨죠. 저도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예술지원을 통해 발표된 결과물이 확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예술지원 정책이라는 것은 전부 간담회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무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실행하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서울문화재단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을 잘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한다는 건데, 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시민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신경쓰고 있기에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창기 우리 사회에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사회·문화·경제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저는 예술정책도 현재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인촌 맞아요. 지원은 끊임없이 변해야 해요.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또 이렇게도 해 보면서 계속 바뀌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바꾸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도 있죠. 하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순수 창작 지원과 향유자 지원은 구분되면 좋겠고, 예술가를 지원한다면 분명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지원할 때 확실하게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창기 얼마 전 '창작지원사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죠'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원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보는 것 같았죠. 누군가는 공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세금으로 마련된 지원금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잘 쓰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되새기게 됐고요. 그래서 예술가와 작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티켓 파워를 높이고 예술단체의 재정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에게는 양질의 결과물을 확산해 우수 작품 향유 기회가 넓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예술상·서울희곡상 등이 이러한 맥락에서 레퍼토리 개발과 확산을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유인촌 저 역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건, 지원금이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독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원금의 부작용이랄까요. 너무 의지하다보니 지원금이 없으면 창작을 하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이창기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금을 주는 형태를 벗어나서 지원 방식의 관점 전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촘촘한 그물망처럼 정교한 지원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어요. 청년예술지원이나 원로예술지원 같은 경우가 그렇고, 융합예술 분야의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변화입니다.

유인촌 극장 중심의 지원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극장은 좋은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더 명확한 심사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관객 입장에서 좋은 작품을 올리는 곳으로 평가받으면 그 극장은 브랜드를 갖게 되는 거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참고로 해외의 소극장은 이미 전문화된 곳들이 있어요. 창작극 초연만 하는 극장도 있고, 실험극으로 널리 알려진 극장도 있죠. 재단에서 그런 시도를 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몇 개 프로그램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24시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웃음) 뜬금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예술가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문화 확산을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이창기 서울 지역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의 공통된 의견 중에, 전체 예술인 중 많은 수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정작 중앙정부 지원은 배제된 것이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구 대비 문화 향유 비율을 본다면 지방보다 열악한 부분도 사실이고요.



유인촌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25개 자치구에 구립 오케스트라·극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체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재단 매칭으로 의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급여를 주는 고용 방식 말고, 예를 들어 시군단원으로 종로구 예술단을 만들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특화해도 좋고요. 지역에 따라 인구가 4~5만 명인 곳도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는 50만이 넘잖아요. 우리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중앙정부와 서로 잘 조정하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광역문화재단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창기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전국에 17개 광역문화재단이 있는데,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 예술가를 위한 지원, 기초문화재단과의 연계를 위해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인촌 서울시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이 높아서 정책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지자체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문화예술 정책 지원이나 예산 지원의 수준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지역 재단의

발전이나 위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산도 적은 데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활동 범위가 너무 좁은 겁니다. 문화재단의 역할 중 하나는 지자체장을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며 하나씩 사업을 함께 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재단 대표가 공무원, 지자체장, 지역주민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앞으로 나아갈 20년

이창기 오늘 대담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을 어떻게 가다듬고 만들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책 외에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서울의 연극이 어떤 부분에서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인촌 지금 보면, 예술계에 중간 세대가 없고 어른들도 몇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대학로도 젊은 세대들로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고요. 전에는 단체 안에 다양한 세대가 활동했는데, 지금은 여러 세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예술은 그 지형을 깨뜨리고 새롭게 끌고 갈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죠. 대학로는 철저하게 실험 공간으로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부딪히면서 자기 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성장해 완성도와 예술성 높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출연한 <파우스트>나 얼마 전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고도를 기다리며>도 보세요, 티켓 오픈하면 매진되잖아요. 예술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작품, 특별한 경험의 공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잘 기획하면 충분히 흥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무대에 올랐을 때 믿음을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창기 재단의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것도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지난 20년간 재단은 양적으로 많이 확장했어요. 창립 당시에 비해 사업 예산이 10배 이상 늘어났고, 조직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중심으로 효율화하면서 안정적 운영 기반도 만들었고요. 또 20년간 25개 공간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일부 공간을 자치구와 민간 운영으로 전환하고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새로운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 구조를 재편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다각적인 창작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사각지대 없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예술가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양질의 문화를 더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 향유 사업 또한 축제나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여가문화 활동 변화에 따라 생활권 예술 향유와 참여적 예술 경험을 확대하고 관광과도 연계한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 욕구가 K-아트의 자양분이 되고, 이것이 다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야말로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 누리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이 재단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선도적으로 혹은 과감하게 기존에 해오던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과 조직을 재정비해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려는 출발 지점에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20주년을 바라보며 느끼는 소회와 기대를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인촌 서울문화재단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주도하에 서울의 문화예술 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개선된 것도 많고요. 대도시는 규모도 크고 이해관계도 복잡한데, 어려운 시도를 계속해나갈 수 있는 것도 재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문체부나 서울시가 직접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느라 바빴는데요. 올해는 재단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여건이 되리라 생각해요. 문체부·서울시·재단이 함께 만나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민이 문화예술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대담은 20주년 백서 『서울문화재단 20년』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기획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정리 | 최윤우

2004—2023

서울, 서울문화, 서울문화재단

가장 아름답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스무 살
서울문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20년을 기대하며.

2004

서울문화재단 출범

2003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 근거를 갖춘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3월
15일(창립기념일) 법인 등록을 마쳤다. 이어 5월
18일에는 재단 출범식을 열었다. 옛 안기부 부속
건물(중구 예장동 4-6)을 임시로 고쳐 사무실을
만들었다. 초대 이사장으로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을 지낸 정연희, 대표이사로 중앙대학교
교수이자 배우 유인촌을 임명했다.

서울 문화예술 정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재단은 일단 살림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그간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2004년 설립
당시 전체 사업 예산이 82억 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560억 원이며, 2024년에는
1,300억 원에 이른다.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이런 형태의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전례가
없었다. 결국 재단 운영에 적합한
이상적인 문화행정 시스템의 사례를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영역의 문화행정
기관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초기에 이러한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설립되자마자 주어진 사업들을
수행하다보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들을 해치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급했다.”(김영호)

“설립 초기는 그야말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폭주하던 시기였다고
본다. 기발한 사업 아이템과 발상들이
쏟아졌다.”(김홍남)



서울열린극장 창동



실연 심사를 도입한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 NArT

문예진흥기금 이관, 예술창작지원사업 시작

서울문화재단의 등장은 문화예술계에
단비 같았다. 당시만 해도
예술지원기관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유일했기에,
서울에 집중된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새 주체로서 재단에 거는 기대가 상당했다.
‘예술지원’은 서울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이자 비전 그 자체였다. 재단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사업 영역인 것. 재단은 설립 첫해
서울시로부터 시민문예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사업을 이관해 운영했고, 집중육성
지원사업(다년간 지원)을 개시했다. 이후
재단은 새로운 예술지원 프로그램을 구별하고
서울형 예술지원 제도를 구축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문화예술계에 20년 넘게
지원했는데 그동안 남은 게 뭐니까.
그것은 결국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택해 집중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한
번 지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3년짜리
장기 지원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체당
지원액은 늘겠지만, 지원 예술가의 절대
수가 줄어들게 돼 난리가 나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유인촌,
2004년 5월 21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서울열린극장 창동~2011, 대학로연습실~2022 개관

2004년 문을 열어 2011년까지 약 8년간
운영된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879석 규모의
국내 최초의 대형 상설 천막 극장.



최첨단 이동식 텐트로 만들어진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대형 뮤지컬 공연은 물론, 어린이 공연 등을 통해 가족 단위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 등 단체와 함께 서울 동북부 지역에 또 다른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큰 역할을 했다.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0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서울시민에게 문화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됐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청계천이라는 거대한 공공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고, 이에 재단은 이러한 공간을 주무대로 삼아 문화 콘텐츠를 이식하게 된다. 2004년 5월 문을 연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환원하고자 그해 6월부터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를 추진했고, 첫째 55회 공연을 열어 2만 5천 명 시민이 공연을 관람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까지 이어졌고, 2000년대 후반 서울문화재단을 서울시민에게 각인한 여러 광장 프로그램의 토대가 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상의 여유'

2005

서울형 예술지원사업의 시작

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은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사업을 승계하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재단의 고유한 브랜드 사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탄생한 것이 집중육성 지원사업,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 NArT, 사후지원사업이다. 특히 '나트NArT, New Artist Trend'는 활동 경력 이 풍부하고 우수한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지원사업에서 탈피해, 경력은 짧지만 신선하고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에 각 장르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만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정했으며, 이때 쇼케이스 형식을 통한 실연 심사를 도입해 주목받았다. 더불어 사후지원제도는 기존 지원 체계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방법으로, 신청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서류 심사를 제외하는 등 과정이 주목받았다. 이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규모는 점차 성장한다.

청계천아티스트

(서울거리아티스트)의 등장

서울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약 11킬로미터 길이의 하천인 청계천은 서울의 문화 정체성 찾기에 공헌한 또 하나의 공공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라 시민 곁으로 돌아온 청계천은 22개의 문화의 다리와 청계광장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재단은 새롭게 태어난 청계천에 불어넣을 서울의 문화 콘텐츠로 거리예술을 택했다. 이에 '청계천아티스트'를 공모, 두 번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총 54개 팀, 200여 명의 거리예술가를 선발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활동 인증서와 함께,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소규모 음향 장비를 지원하고 보험에 가입하며,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도 뒷받침했다. 이들 아티스트와 함께 청계천은 거리예술의 낭만이 흐르는 도심 하천으로 변모하며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10월 한 달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성원으로 12월까지 연장에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점차

청계천에서 서울의 주요 거리로 확대되면서 '서울거리아티스트'라는 이름을 얻어 2012년까지 이어졌다.

[문화+서울] 창간

2005년 6월 정책 무크지로 창간, 2007년 월간지로 전환하며 꾸준히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온 [문화+서울]은 2023년 10월, 200호를 발간하며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화서울후원상 제정

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환경을 가꾸는 데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서울후원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자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선정했다. 고해 박성용 회장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 재계와 문화계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이듬해 제2회 수상자는 르노삼성자동차(문화가꿈상)와 하나은행(문화나눔상), 제3회 수상자는 GM대우(가꿈상)와 한화그룹(나눔상)이다.



도심 곳곳에서 시민과 만난 청계천아티스트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한 C-9 생생 프로젝트

2006

용두동 청사 리모델링

동대문구 용두동 청계천로에 위치한 옛 성북수도사업소를 리모델링해 서울문화재단 청사로 공개했다. “예쁘고 크게 고치는 리모델링이 아닌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주민과 예술가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이때 환경디자인 개념을 도입, 청계천과 접하는 건물 앞부분에 멋스러운 가림막을 걸었다 미술가 최정화가 감독을 맡아 전면에는 건국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생들이 만든 색색의 타폴린 천을 격자처럼 엮어서 시공하고, 옆면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 140여 장을 이어 붙였다. 사업명은 ‘C-9 생생 프로젝트’. 청계9가Cheonggye 9, 문화culture, 창조creation, 공동체community,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등 의미를 엮었다.

서울문화예술총서 1

『서울의 밤문화』 발간

서울문화재단이 기획한 서울 담론서 시리즈 ‘서울문화예술총서’의 첫 번째 책.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간 이어진 서울의 다채로운 밤 풍경을 펼쳐놓았다. 일제 강점기의 기생문화부터, 이제는 과거가 된 통행금지, 그리고 지금의 유흥문화로 이어지는 서울의 밤문화를 각종 문헌과 인터뷰 등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간지 기자로 일한 김중식·김명환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2007년 『문학 속의 서울』(김재관·장두식 지), 2008년 『서울사람들』(권기봉 지) 발간으로 이어졌다.

2007

제2대 이사장 박범신, 대표이사 안호상 임명

제2대 이사장으로 소설가이자 명지대학교 교수인 박범신, 대표이사로 예술의전당 예술사업국장 안호상을 임명했다.

“서울의 문화 활동이 도시의 규모에 비해 넘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시나 공연 수준이 양적으로 적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문화가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겹의 원인은 시민들이 스스로 해독, 이해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부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읽어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안호상, 2007년 2월 3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고궁 음악회에 이은 고궁뮤지컬의 탄생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서울을 문화도시로 가꾸는 매개가 돼주었던 또 하나의 공간이 ‘고궁’이다. 고궁을 활용하고자 하는 재단의 첫 시도는 2006년 서울스프링살내악축제 중 ‘고궁 음악회’였다. 고궁의 단아함과 클래식 음악의 우아함이 어우러져 고궁의 대표 문화 콘텐츠가 된 이 공연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됐다. 경희궁 일대 고궁을 활용해 창작뮤지컬 개발을 추진한 ‘고궁뮤지컬’은 서울의 역사적 자원을 문화공간으로 환원하면서도 외국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꽤 성공적이었다. 2013년 서울문화재단 인지도 조사 결과 77%가 ‘고궁뮤지컬’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때 발표된 창작뮤지컬은 정조대왕의 꿈과 사랑을 그린 〈화성에서 꿈꾸다〉2007, 〈궁길전〉2007, 〈명성황후〉2008, 〈대장금〉2008-2010, 〈왕세자 실종사건〉2011, 〈천상시계〉2012 등이다.

서울형 창의예술교육의 시작

200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점차 확장되면서 재단 역시 2007년부터 전담 부서(문화교육팀)를 신설했다. 재단은 2007년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데서 시작해 고유한 예술교육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이에 링컨센터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고, 교육자(예술강사)가 강사로서 해야 할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2007년 열린 고궁뮤지컬 〈천상시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즉 TA Teaching Artist 제도를 만들게 된다. 이후 재단의 주요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위한 ‘예술로 돌봄’, ‘예술로 플러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청소년을 위한 ‘서울창의예술 중점학교’, TA와 문화매개자 대상의 서울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 등이 운영됐다.

남산창작센터~2016, 서울연극센터,
청계창작스튜디오~2009 개관



‘대학로 사람방’ 서울연극센터

2008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비약적 성장

2003년 시작해 다양한 형식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명실공히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전성기는 2008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보다도 1년 먼저 출발해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해 지정한 ‘서울시민의 날’(10월 28일)에서 시작해 2002년 한일 월드컵 거리응원문화를 거쳐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시민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종합 축제를 지향했으며, 2008년과 2009년은 예술감독제를 운용하며 축제의 콘셉트와 운영 전반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강화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인사였던 안은미 무용가를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는데, 그때 한강르네상스와 서울 천만 관광객 목표도달이라는 시정과 맞물려 서울시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게 됐다. 일 년에 네 번 축제를 운영한 것인데, 봄에는 궁 축제, 여름에는 한강에서 축제, 가을에는 서울에 있는 축제를 전부 모으는 축제, 겨울에는 빛 축제를 하자는 계획이 세워졌고, 그렇게 2008년

한 해를 보냈다. 결과적으로는 그때가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제일 많이 성장한 시기로 볼 수 있다.”(김영호)

일 년 내내 축제가 이어지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09년 축제는 엄청난 호응과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페스티벌이 하나의 색깔을 갖기 시작했고,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독특한 장소성이 부각된다는 것.

2010년부터는 시민 참여형 공연예술축제로 그 성격이 변화하면서 거리예술의 성격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축제와 공간을 연계하는 것을 넘어 예술의 대중화까지 확장하는 방향을 고민하게 된 것. 이어 2016년부터는 서울거리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꿔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민을 한데 불러모은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

서울 시내의 낡고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한 서울시창작공간이 하나둘 개관하기 시작했다. 예술을 통해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고, 예술 장르 간 통합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예술 참여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등장한 것.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토대로 국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서울시의 컬처노믹스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아트팩토리ARTfactory' 사례와 맞물려 재단 역시 빠르게 사업을 추진했다.

가장 먼저 서교예술실험센터가 문을 열었고, 같은 해 금천·신당·연희까지 총 네 개의 창작공간이 개관을 알렸다. 이듬해에는 문래·성북·관악, 2011년에는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이관됐으며 홍은예술창작센터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했다. 사업을 본격화한 지 1년 만에 팔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향후 공간을 바탕으로 각 장르에 대한 지원을 분리해 운영하기도 했다.

더불어 재단은 그해 10월 '세계적인 창작공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을 열었고, 2016년까지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을 열어 공간을 활성화했다.

남산예술센터~2020,
서교예술실험센터~2023,
대학로연습실 2관~2013,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개관

2010

제3대 이사장 박범신, 대표이사 안호상 임명

예술지원사업 체계화 및 확대

2009년 들어 2배 이상 폭증한 예술지원사업의 관리와 누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행정 전산화가 절실히 필요했고, 이에 재단은 전국 문화재단 중 최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예술지원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2010년 들어 안착시켰다. 이때 재단은 전국의 모든 예술지원 관련 정보를 모아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서울예술지원박람회 2009~2010을 열기도 했다.

2010년에는 예술지원사업을 '창작활성화', '시민문화'로 구분해 체계화하고, 연구, 평론, 작품집 발간, 문학연계 콘텐츠 등 예술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했다. 이 시기에 '서울예술축제지원'이 처음 생겨나기도 했다.

금천예술공장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금천구 독산동의 옛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금천예술공장은 개관과 동시에 '산업에 영감을 주는 예술'을 개발하기 위한 '다빈치



금천예술공장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융합예술 창·제작지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금천예술공장 대표 사업이다.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전시까지 지원하며, 전문가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으로 했다.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제작비에 산업체 후원이나 기술 자문 등까지 포괄해 기업체의 자금과 기술, 부품 후원 등을 유치하며 예술가와 산업이 만나는 실제 접점을 찾는 데 주목했다. 또한 금천예술공장은 국제교류가 활발해, 실제 해외 유명 레지던시에 입주하고자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에 지원하는 예술가가 상당했다고 전해진다.



2021년까지 운영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창작공간 페스티벌 일환으로 열린 아트마켓

가든파이프 문화특구 위탁 운영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이주 상가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된 동남권 유통단지, 이곳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문화재단이 위탁받아 가든파이프 문화특구 사업을 진행했다.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2021,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2021 개관



잠실창작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2011

서울시장예인미술창작스튜디오 위탁운영

서울시장예인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서울시가 송파구 종합운동장 내 공간을 재활용해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으로 조성한 곳으로, 2011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잠실창작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며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유일 장애예술인 창작 레지던시로, 장애예술인의 전업작가로서의 성장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재능을 발굴하고, 장애예술 분야 전반의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 후원과 연계한 장애아동 창작 지원 '프로젝트A', 장애·비장애 동행 프로젝트 '같이 있는 가치' 등 대표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2년 대학로로 임시 이전하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홍은예술창작센터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

2012

제4대 이사장 김정현, 대표이사 조선희 임명

제4대 이사장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지낸 김정현, 대표이사로 소설가이자 한국영상자료원장을 역임한 조선희를 임명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도 10년이 됐다고 하면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바깥 시선도 그렇고 내부 생각도 그렇다. 서울문화재단의 지난 10년간은 체계를 세우고 인프라를 갖추는 기간이었다. 문화정책의 전달 체계가 행정부와 자치단체, 문화재단 사이에 구축되는 과정이었다. 이외에도 재단은 15개의 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하면서 문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 거점을 마련했다. 앞으로 10년은 이 인프라를 잘 작동시켜 문화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대시민 문화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할 시간이다.”(조선희, 2014년 3월 23일 뉴스1 인터뷰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통합 브랜드 구축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사업은 예술교육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과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두 축으로 나뉜다. 재단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TA 양성 이후 다양한 예술교육 사업을 '서울형 창의예술교육'이라는 큰 전략 틀에 나뉘어 전개하기 시작한다. '서울형 창의예술교육(서울창의예술교육)'이란 미적체험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체험교육을 지향하고, 통합예술교육으로 깊이 있는 예술의 이해와 다름을 통한 소통을 실천하는 재단의 예술교육 통합 브랜드다. 이 시기에는 서울시와 문화부로부터 위탁받은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업이 운영됐다.



동시대 연극의 장, 남산예술센터

공공 제작극장으로 재탄생한 남산예술센터~2020

2009년 남산예술센터를 개관하면서 재단이 내놓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창작 초연 중심의 현대연극 제작극장, 시대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동시대 공연장,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극장.

한국 연극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을 운영하는 일이기에, 재단 역시 운영 방식에 있어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공공 제작극장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지향하고자 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체 제작공연은 물론, 민간 극단과 공연장이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극장 운영의 큰 축으로 움직였다. <푸르른 날에>, <도화만발>, <살> 같은 작품이 이 시기 남산예술센터만의 색깔을 명료하게 보여줬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시작

재단은 2004년 발족 당시부터 문화기부와 제휴 사업을 담당할 부서를 운영했다. 문화기부는 재원 조성 외에도 예술의 가치를 기업과 시민이 나누는 활동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2년은 본격적인 메세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로, 민간 기업의 후원금에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기부와 문화제휴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했다.

ISPA 서울총회 개최

국제공연예술협회 ISPA의 지역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재단은 2009년부터 유치 활동을 시작해 꾸준히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왔고, 2012년 '문화변동'을 주제로 열린 서울 총회에 34개국 96개 도시 432명의 공연관계자가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3

서울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

재단은 광역과 기초 문화정책 주체와 상생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차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 문화분권과 문화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 2007년 창립한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가칭 '서울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문화정책 담당 부서장과 기관장이 모여 협력하고 역량을 개발하고자 했으며, 2014년에는 서울문화플랜 지역의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춤추는 서울, 서울댄스프로젝트

언제 어디서나 춤추는,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 시민을 춤바람나게 하는 댄스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춤을 통해 희망의 몸짓을 나누고 삶의 활력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젝트.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5월 '춤바람 선포식'을 시작으로 8월 '춤야유회', 9월 '춤나눔 소셜다이닝', 10월 '서울무도회' 등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향했다. 첫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 춤꾼 '춤단'과 시민기획단, 춤바람 커뮤니티 586명, 일일춤단 178명 등 1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진행됐다.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 일상을 습격하다

예술에 다가가는 시민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시민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예술적 감성의 촉발을 돕는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가 2013년부터 도시 곳곳을 찾아갔다.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 재단의 공공미술 사업 경험이 빛을 발했다. 기발한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일상에 재미와 활력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는 예기치 못한 예술 작품이 도시의 풍경과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생기있게 만드는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당신의 목소리가 서울의 역사가 됩니다’ 서울 시민의 미시적 기억과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해 새로운 형태의 시민 중심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한 사업. 서울에서 흘러가는 일상적 삶의 기억과 이야기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소통과 공감의 유대 문화를 조성하는 ‘지혜의 보고’가 된 프로젝트다. 재단은 이 프로젝트로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록해 안숙선의 창작판소리 <유월소리>를 공연하는가 하면, 단행본 『1995년 서울, 삼풍』을 발간하고 기획 전시를 열기도 했다.

시민청 개관 및 위탁 운영~2023

2014

서울 문화통계조사 시작

시민의 문화 향유 실태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재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2014년에는 세대별 문화 활동 특성을 구분해 현실에 대한 불안을 문화로 극복하는 ‘문화 열광족’(20대), 문화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화려한 싱글녀’와 문화 최전방에서 물러나 육아의 행복에 빠진 ‘육아맘’(30대), 성장하는 자녀와 집 근처에서 놀고 싶은 ‘프렌디’, 본인은 문화 소외층이지만 아이를 위해 문화를 찾는 ‘컬처맘’, 30대처럼 화려하지만 조금 외롭고 피곤한 ‘블루 싱글녀’(40대), 양육의 그늘에서 벗어나 문화 강좌에 열공하는 ‘낭만족’(50대), 문화 만족이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행복한 ‘액티브 시니어’(60대)로 구분하기도 했다.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기업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해 문화예술 기부 캠페인을 확대해나갔다.

2015

제5대 이사장 김광림, 대표이사 조선희 임명

제5대 이사장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김광림을 임명했다.

예술지원체계 전면 개편

재단은 설립 11년차를 맞이하는 해 5개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한 장르별 통합 지원체제로 개편했다. 장르별로 재정지원과 공간지원, 발굴육성지원을 총괄해 예술지원체계를 구축, 각 공간이 능동적인 창작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미스터 기부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기부 캠페인



마음약방1호점

이에 서울연극센터·홍은예술창작센터·문래예술공장·서교예술실험센터·연희문학창작촌이 각각 연극, 무용, 음악·전통·다원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예술지원을 담당했다.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약방'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치유 캠페인 '마음약방'을 개시했다. 자판기에 500원을 넣은 뒤 20가지 마음 증상 중 내게 적용되는 번호를 누르면 증상에 따른 예술처방이 나오는 독특한 아이디어. '미라클막중', '꿈소멸증', '월요일 말기', '헬조선', '문송합니다', '청년실신' 등 현대인이 느끼는 고단함을 재치 있는 증상으로 유형화하고, 상황에 따라 영화·도서·그림 처방이나 서울산책지도를 제안한다. 마음약방 자판기 1호점은 시민청에 설치,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만 명 넘는 시민이 이용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을 모아 서울연극센터에 2호점을 설치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

2016

제6대 대표이사 주철환 임명

제6대 대표이사로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자 방송 프로듀서로 활동한 주철환을 임명했다.

첫발을 내딛는 신진 예술가를 위한 '비기너스 프로젝트'

재단은 더 많은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진 예술가를 위한 '최초예술지원'과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소액다다컴'을 선보였다. 최초예술지원은 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35세 이하 예술가를 대상으로 1명(팀)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작품 창작만 아니라 사전 연구 활동도 인정했다. 작은예술지원 '소액다다컴'은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활동에 대해 1명(팀)당 100만 원을 지원, 두 지원제도 모두 선정자의 정산 과정을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러한 재단의 시도는 이후 '예술기반지원' 등 새롭게 등장한 예술지원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예술치유허브~2021, 서울무용센터 명칭 변경,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김포기압장을 리모델링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2017

청년예술지원사업 개시

재단은 기존 예술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예술지원사업을 개시했다. 청년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실험과 탐구, 시도를 통해 독립된 예술 영역을 구축해나갈 수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한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때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내세우고, '최초예술지원'의 대상 연령을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로 확대했다.

시민과 지역이 중심되는 '생활문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상 곳곳에서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재단은 생활문화지원단을 출범했다. 예술 활동 장르별 네트워크와 지역 동아리 네트워크, 자치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생활문화주간과 연간 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시민이 어디서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지원을 더했다. 이러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시민 일상의 변화와 함께 개편을 거듭하며, 현재 '지역문화' 사업과 통합해 생활권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서울총회 개최

세계 28개 도시, 100여 명 회원 도시 대표단과 문화정책 전문가가 모여 교류·토론하는 국제 문화정책 네트워크인 세계도시문화포럼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아시아 최초 개최로,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의제를 공유했다.



2019

홍대 앞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라이브'

재단은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중심으로 인디음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서울라이브'를 시작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2013년부터 민관 거버넌스 모델인 공동운영단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2023년까지 '서울라이브'를 통해 인디 신scene의 다양한 기획과 활발한 교류를 지원했다.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 프로젝트 '같이 있는 가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함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재단은 함께하는 문화예술 포럼과 다양한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담론을 형성·확산하고 있다. 첫해인 2019년에는 '일상의 공존'과 '창작을 위한 공존'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두고 대화를 펼쳤으며, 2020년에는 '일상의 조건'과 '창작으로의 연대'라는 주제로 두 번의 포럼과 세 편의 기획전시를 열었다. 2021년에는 프로젝트를 확대해 기술 발전과 장애에 대한 다양한 관계를 환기하는 라운드테이블과 다양한 워크숍을 여는 등 그 범위와 담론을 꾸준히 확장했다.

2018

제6대 이사장이경자,
제7대 대표이사 김종휘 임명
제6대 이사장으로 소설가이자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지낸 이경자, 제7대 대표이사로
성북문화재단 대표를 역임한 김종휘를
임명했다.

삼각산시민청 개관 및
위탁 운영~2020,
삼일로창고극장 위탁 운영~2023



다양한 음악의 발견, 서교레코즈

2020

경력 단계에 따른 새로운 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은 성과 중심의 예술창작
지원제도를 창작 주체 중심인 '예술창작지원'과
'예술기반지원'으로 재설계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생물학적 나이로 구분되던 기준을
없애고, 예술활동 경력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 발표에 드는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예술기반지원을 꾸려 예술가를 중심으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어린이와 함께한 삼각산시민청 개관식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는 '같이 있는 가치'

청년예술청, 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시민 곁에 다가가는 '서울스테이지11'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문 열어

재단은 2018년 동숭아트센터 부지를 매입, 리모델링을 거쳐 2021년 대학로센터를 열었다. 용두동 소재 본관의 기능 일부를 이전, '신대학로 시대'를 선포하고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임시 이전 및 서울연극센터 재개관과 더불어 대학로 창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했다. 지하에는 블랙박스 공연장인 대학로극장 쿼드가 들어섰다.

2022

통합축제 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

다양한 장르와 콘셉트로 구성된 재단 주최 예술축제가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2021

제7대 이사장 박상원, 제8대 대표이사 이창기 임명

제7대 이사장으로 배우이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강단에 선 박상원, 제8대 대표이사로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강동아트센터 관장을 지낸 이창기를 임명했다.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구축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술가가 막막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온라인 지원 시스템. 재단은 광역 단위 최초로 예술인 지원사업 전산 시스템인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구축, 공고부터 신청과 심사, 정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했다.



신대학로 시대를 여는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한강노들섬발레〈백조의 호수〉

2023

서울예술상·서울희곡상 제정

재단은 창립 이래 서울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가를 성장시키고, 다양한 예술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예술계 활성화의 발판을 다졌다. 예술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곧 예술계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예술상은 재단의 지원사업과 함께 성장한 예술가를 격려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유통하기 위한

‘아트페스티벌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구상하고, 2022년 하반기 5개 축제를 묶어 소개했다. 이듬해에는 사계절에 각기 편성된 7개 축제를 아우르며 45일간 예술가 1,644명과 218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8만여 명 시민과 만났다.

대학로극장 쿼드 개관

재단은 옛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을 리모델링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작품을 실험할 수 있는 블랙박스 공연장,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QUAD를 열었다. 쿼드는 창작초연 중심의 1차 제작·유통 극장으로, 공연예술로 하여금 동시대적 가치를 미학적으로 구현하며 예술가와 관객의 변화를 이끄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

문화예술의 미래 가치를 탐색하는 서울문화예술포럼 출범

예술계 선순환 제도로 등장, 첫째 전통예술가 허윤정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서울희곡상은 새롭고 우수한 창작희곡을 발견해 연극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극작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공모는 등단 여부와 관계 없이 미발표 창작 장막 희곡을 대상으로 하며, 첫 공모에 178편이 응모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제1회 수상자인 극작가 이실론의 작품은 이후 대학로극장 쿼드에서의 공연 제작까지 지원한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

*더 많은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에서 펴낸 『서울+문화+재단+10년』 2014, 『서울문화재단 20년』 20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예술포럼 개최를 선언하는 이창기 대표

나와 서울문화재단의 열 가지 이야기

시민의 기억 속 서울문화재단은
어떤 모습일까. 20주년에 기해
각종 사연을 모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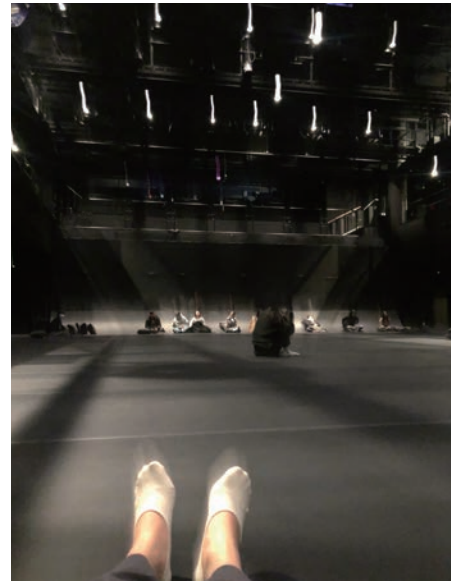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은 20대 초반의 나날을 문화예술과 나눔으로 가득 채워준 감사한 곳이에요. 대학교 입학 후 생애 처음으로 해 본 자원봉사인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그리고 2012년 문화바우처 문화예술봉사단. 서울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든 문화예술 행사의 즐거움을 체감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에서는 자원활동가로 시민을 응대하고 공연 전에 필요한 준비를 맡았어요. 가장 인상 깊던 건 안은미댄스컴퍼니의 공연을 난생처음 본 것! 말없이도 몸짓, 손짓, 눈짓만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낀 순간이에요. 문화예술봉사단은 2012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했는데요. 첫날 혜화동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클라이언트와 만나 공연장까지 안내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으뜸봉사장 표창을 받은 것!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여러 사람에게 닿았고, 그걸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컸습니다. **이현지**

#대학교극장 퀴드

지난해 대학교극장 퀴드에서 황수현의 <Zzz>를 보았습니다. 무슨 공연인지도 모르고 동기가 보러 가자고 해서 무작정 예매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과제와 공연에 떠밀려 잠을 줄였던 터라, 공연 당일 잠을 못 자고 갔습니다. 저와 동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연극을 같이 봤는데, 2학기부터 극장에서 둘 다 잠드는 일이 유독 많아졌습니다. 공연을 보지 못했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극을 올린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싼 티켓을 어렵게 구매해놓고는 잠을 자고 나오다니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웬걸. 폭신한 쿠션과 담요가 마련되어 있고, 먼저 입장한 관객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 급하게 공연 소개를 읽었습니다. 잠을 자도 된답니다. 아니, 잠을 자라고 하더라고요. 무대로 보이는 영역에서 이미 퍼포머가 잠을 자고 있더군요. 저와 동기도 멍쩍게 웃으며 자리를 잡았고, 공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3시간이 지나 있었고, 퍼포머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거시더군요. 동기는 공연이 끝난 줄도 모르고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참 위로되는 공연이었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극장을 나서며 이상한 위로라고 끄뻑이던 그날의 감각이 생생하고도 그롭습니다. **정다운**



#RE:SEARCH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품과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는 최소한의 품과 애정도 내기 어려운 창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 2020년 태어난 아기와 겪은 코로나19 시국은 작품 활동 자체를 생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해야 하는 아기와 시간은 엄마로서는 행복했지만, 창작자로서는 갈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창작을 하고픈 마음을 고이 간직하며 아기와 시간을 보내던 중, 아기와 할 수 있는 연극적 고민을 서울문화재단 'RE:SEARCH' 사업에 녹여보았고 감사하게도 선정되었습니다. 저에게 서울문화재단은 예술 하는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귀한 인연입니다. 비로소 삶과 예술의 접점을 만들어준 특별한 경험이고, 기회였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놓지 않고 지속할 힘을 주었습니다. 2024년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한 서울문화재단에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더 다양한 시도로 예술가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제법 예술가답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주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하겠다고 단체를 만든 첫째.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에 덜컥 선정되었습니다. 용산과 약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수업을 시작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8년 동안 노인 영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서울문화재단 사업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타 단체와의 협력 수업 등을 통해 단체가 성장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여러 장르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 기억 속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영화교육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많은 학습자를 만날 기회를 준 아주 감사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2010년 ‘서울문화재단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 강사를 대표해 무대에 올라 감회를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14년이 흐른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저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앞으로 꼭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문화예술교육자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보이시겠지만 제 마음의 선물이 지금 배송되고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황보성진**

#위댄스캠프

서울시민과 함께한 20살, 성년 맞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연히 마주한 장소에서 ‘좋은 전시다’, ‘좋은 행사다’ 생각한 것은 서울문화재단 주관 행사인 경우가 매우 많았어요. 제가 시민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을 확실히 인지하게 된 건 ‘위댄스캠프’를 통해서입니다. 스윙댄스 동호회에서 활동한 지 4년째, 서울문화재단에서 동호회 댄서를 위한 공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댄서분들과 연습실을 잡고 연습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던 게 매우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과 행사의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황신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저는 저글링을 제법 잘하는 고2 백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저글링을 잘하는 이유는 2016~2017년 여름방학에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예술놀이터’에 참가하는 행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6년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멀리지만 인터뷰를 한 것도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TV에서만 보던 서커스를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에게 배운 시간은 신기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동생도 같이 수업에 참여했어요. 서커스 기술을 배우며 형제애도 쌓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수업 후 부모님 앞에서 하는 시연은 서툴렀지만, 공연을 잘 마무리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체험은 여름방학 하루지만,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발산하기에는 충분하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추억 만들어주신 서울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밝고 건강한 문화 지킴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백진우**



#피아노서울

2023년 크리스마스트리, '피아노 서울'

덕분에 명동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동예술극장 앞에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조율이 정말 훌륭하게 된 피아노였습니다. 연주자는 연주에 집중하고, 지나가던 이들은 반원으로 넓게 둘러서서 감상하고 박수 치기 좋은 위치였어요. 피아니스트급 실력자들의 멋진 연주를 들으며 옆에 놓인 팻말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한 피아노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축제와 같은 날을 보낸 것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좀 더 많은 악기를 사람들이 접했으면 하지만, 소리가 좋은 피아노만으로도 시민을 위한 멋진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거나 관심 없는 이들도 누구든지 음악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스무 살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울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안희재**



#최초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저는 현재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수년 전 등단을 위해 수많은 공모전에 지원했지만 낙방했어요. 사실 공모전에 맞는 원고가 별로 없었거든요. 고민하다 2017년 최초예술지원사업 '문학청년 활동지원' 공모를 발견했는데, 중편 동화분량의 원고를 모집하기에 냉큼 지원했지요. 당선되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어서 다른 공모전에서도 상을 받고 등단을 인정받아 미약하나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2018년 문학 웹진 [비유]에 실렸어요. 힘 빠진 작가 지망생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작가가 되게 해준 서울문화재단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더 열심히 글을 써서 [비유]에서 원고 청탁도 받고 싶네요. **김재현**

*20주년 백서에 담긴 서울시민의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기획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아트페스티벌 서울

코로나19로 몇 년간 공공 썬냈던 일상은 2023년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2023년에는 그동안 못 하던 것을 보복 소비하듯 마구 찾아다니며 즐겼는데, '아트페스티벌 서울'이 제 일상 문화 향유에 큰 몫을 했습니다. 송현동에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접한 후 일 년 동안 열리는 모든 페스티벌을 다 찾아보리라 다짐했어요. 전부 가진 못했지만 서울거리예술축제·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에 참여해 즐겼고, 서울에 굉장히 좋은 문화예술 축제가 있었다는 걸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추석 기간 열린 서울거리예술축제엔 자발적으로 참여해 향유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다는 걸 보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많아 즐거웠어요. 특히 개막식 공연은 여러 면에서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한강노들섬클래식도 신청했는데, 공연을 앞두고 폭우로 당일 취소되어 아쉬웠네요. 예약할 때도 조기 매진될까봐 마음 졸이던 기억도 있고요. 올해는 꼭 전부 참여해서 문화 축제로 2024년을 꼭 채우려합니다. 20주년 축하드리고, 늘 일상에서 모두가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 기획,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00인의 시민춤단, 축제모니터링단, 서울시민예술대학 등 정말 다양한 서울의 문화예술 활동을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해왔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재단과의 추억 덕분에 이렇게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축제 뒤에는 묵묵히 고생하며 일해주시는 재단 직원들이 계신 것을 알아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스무 살, 서울문화재단의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삶이 예술이고 일상이 축제인 서울문화재단의 다음 20년을 응원하겠습니다. 덧붙여, 예술인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다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복원되었으면 합니다. 10년의 흐름을 보면 예술 전문가 프로그램은 증가했으나 시민 참여형은 줄어든 것으로 느껴집니다. **허웅**



ASSOCIATED

예술가의 진심

최태지가 전하는 한국 발레를 향한 진심

예술인 아카이브

김두봉

권해원

페이퍼로그

융합예술팀 곽해리나

인사이드

대학로극장 쿼드 2024 기획공연 프로그램

서울스테이지 2024

제2회 서울예술상

트렌드

문화 향유와 관광, 두마리 토끼 잡는 뉴욕



최태지가 전하는

한국 발레를

향한 진심

1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역사 도시 교토에서도 고풍스러운 바닷가 마을 마이즈루(舞鶴). 지금도 마이코(舞子)들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본 전통춤을 계승하고 있을 그곳에서 1959년 재일한국인 2세로 태어난 한 소녀는 생뚱맞게 발레를 배웠다. 훗날 대한민국에 발레 르네상스를 일으킬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까.

국립발레단을 무려 12년간(1996~2001, 2008~2013) 이끌어 수많은 무용수의 '영원한 스승'으로 통하는 최태지 전 단장 얘기다. '오타니 아스에'라는 이름으로 교토의 가이타니 발레 아카데미와

프랑스 프랑게티 발레 아카데미를 거쳐 일본에서 잠시 활동했지만, 한국으로 건너와 '최태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새로운 운명이 펼쳐진다. 아니, 국립발레단의 운명과 시너지를 내며 동반 상승하게 된다.

1983년 〈세헤라자데〉 객원 주역 무용수 신분으로 조심스레 국내 무대를 밟았지만, 뛰어난 미모와 실력을 뽐내며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노트르담의 꼽추〉 등의 주역을 줄줄이 꿰찼다. 두 아이를 기르며 활동한 최초의 '엄마 발레리나'였고, 1996년 37세에 최연소

국립발레단장에 취임해 한국 발레의 명품화와 대중화를 거침없이 일궈낸 파ioni어(leader)다. 최태지의 발자취가 한국 발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겼지만 '발레계 대모'답게 여전히 반짝반짝 아름다운 그녀를 만났다. 최강 동안으로 "9월이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다"며 깔깔 웃는 모습에 심한 인지 부조화가 느껴졌지만, 한국 발레 최전선에서 40여 년을 보낸 후해야 선뜻 꺼내 보일 수 있는 '예술가의 진심'은 의심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춤은 나의 인생

타임머신을 타고, 전통춤의 도시에서 소녀 야스레가 발레를 시작하 아홉 살 때로 날아갔다. 첫 여행지부터 흥미진진했다. 엉뚱한 선택이 아니라 그곳에 살았기에 발레를 하게 된 셈이라는데, 초장부터 일본의 문화적 저력을 확인하게 됐다. “마이즈루舞鶴는 ‘학이 춤춘다’는 뜻인데, 그래서 춤추는 인생이 시작됐나봐요. 산과바다가 보이는 지방의 작은 도시였지만, 일본 최초로 <백조의 호수> 주역을 했던 프리마 발레리나 가이타니 야오코 선생의 연구소가 있었어요. 도쿄에 본부를 두고 지방 곳곳의 지부를 선생님이 순회하는 시스템이었죠. 1968년에 이미 발레가 대중화돼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언니를 따라갔는데, 연구소의 작은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반했죠. 일 년에 두 번씩 각 지부 학생들이 모여 합숙할 때마다 잘하는 친구들을 만났고, 나도 빨리 토슈즈를 신으려 욕심을 부렸어요. 시골 살던 내가 세련된 선배들을 만나고 외국 발레단 얘기 들으면서 꿈을 키울 수 있었죠.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발레의 매력에 빨리 눈뜨지 못했을 거예요.”

발레의 본향인 프랑스에 유학하러 갔을 땐 스스로에게 실망도 했단다. 일본에서 잘한다는 소리만 들으며 한껏 부풀어 있던 쿤대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서양인들 앞에서 납작해진 것이다. “최고 교육을 받았다고 간 프랑스에서 포기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예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며 격려해주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멋지게 들렸고,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루돌프 누레예프가 연습하러 오던 스튜디오를 다녔으니, 많이 배웠어요. 파리오페라발레 무용수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절로 공부가 됐죠.”

한국으로 건너와 국립발레단 문을 두드린 1983년, 아직 우리 발레 수준은 일천했다. 하지만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하는 시기’였던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의 장이 됐다. “일본에서 처음 전막으로 <백조의 호수>를 올린 조선 출신 무용가 시마다 히로시 선생님의 권유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가면 일본에도 없는 국립발레단이 있다’며 당신의 제자인 임성남 초대 단장님께 저를 보냈죠. 당시 발레단 수준이 낮았던 만큼 저 역시 같이 공연하면서 함께 발전할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한국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좋은 토슈즈나 의상도 같이 나눴으면 했던 거죠. 돌아보면 시마다 히로시 선생과 임성남 단장의 만남이 있던 덕에 저와 국립(발레단)도 만날 수 있었어요. 결국 만남이 중요한 거죠.”

일본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한국 활동이 마냥 수월했던 건 아니다. 문화적인 차이에 당황하는 일도 많았지만, 매사에 ‘긍정의 힘’을 발휘해 이겨냈다. “밥 먹었냐, 얼굴이 왜 안 좋냐, 그런 질문을 듣는 게 처음엔 이상했어요. ‘물도 안 먹는 발레리나에게 왜 밥 먹었냐 묻지?’ ‘일본에선 얼굴이 안 좋으면 피해주는데 굳이 왜 물어보지?’ 거부감이 들었죠. 그때만 해도 탈의실에서 남의 수건을 막 가져다 쓰기도 했는데, 놀랍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정답게 느껴질 정도로 나도 많이 변했죠. 요즘 일본에 가면 답답해요. (웃음) 돌아보면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학교를 다니고,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 활동한 나는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언니는 조상들이 홀로 한국에 온 나를 돌봐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선지 나쁜 일이 생겨도 금세 털고 다시 일어나곤 했죠. ‘지하철 공짜 나이’가 되고 보니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웃음)”

따지고 보면 발레리나로서의 활동은 길지 않았다. 1984년 <백조의 호수>를 마치고 결혼해 뉴욕으로 떠날 때만 해도 발레를 관둘 생각이었다. “그때 토슈즈 던지고 숙사원했어요. 사실 음악 속에 있을 때나 행복하지, 평소엔 외로웠거든요. 늘 선배들과 나란히 활동하니 친구들 사이에선 왕따였으니까요. ‘발레의 신이 너를 도망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선생님 말씀이 듣기 싫었지만 결국 그랬어요.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찾아가던 브로드웨이의 스튜디오에서 새삼 발레의 재미를 느꼈죠. 78킬로그램으로 불어난 몸에서 6개월 만에 30킬로그램이 빠졌고, 가벼워지니 춤도 더 잘되더군요. 만일 한국이나 일본에 있었다면 남들 시선 때문에 못 했을 텐데,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뉴욕에서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무대로 돌아갔죠.”

밀어주고, 시켜주면 된다

첫 딸을 낳은 뒤 최초의 ‘워킹맘 발레리나’로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특채됐지만, 금세

둘째를 낳고 지도자로 전향했다. 무용수보다 지도자가 체질이었는데도 모른다. “둘째 낳고 고민이 많았지만 임성남 단장님의 끈질긴 설득에 발레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에너지가 되더군요. 그래서 내가 받은 믿음과 사랑만큼 후배들을 키웠죠. 사람이 울타리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후배들도 이제 그걸 느끼는지 먼저 찾아와서 밥도 사더군요. (웃음)”

1996년 37세 나이에 본인은 꿈도 꾸지 않던 국립발레단장에 임명됐을 땐 당황했다.



안숙선·국수호 같은 전통예술 대가들과 나란히 앉아 기자회견을 해야 했으니 오죽했을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올리겠다”고 공연할 정도로 배짱이 두둑했던 것도 사실이다. “단장으로서의 준비는 안 된 상태였지만 지도위원을 하면서 발레단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무용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스타를 배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으쌔으쌔 만든 게 ‘해설이 있는 발레’예요. 관객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젊은 단원들을 위한 무대였는데, 그것이 대중화로 이어졌죠. 단장으로 계약한 만큼 나는 무대를 딱 끊었어요. 요청도 있었지만

절대 돌아보지 않았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지속된 단장 1기 시절 그의 활약은 대단했다. 국립발레단은 재단법인으로 독립해 재정을 확보하고, 볼쇼이발레의 클래식 발레와 장 크리스토프 마요 Jean-Christophe Maillot의 컨템퍼러리 발레를 들여와 발레단을 업그레이드했다. 하지만 비좁은 무용계에서 그의 독주를 마냥 곱게 보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해외 공연을 나간 사이 단장이 바뀌는 황당한 일도 겪었다. “자부심이라면 2000년 재단 법인화죠. 국립극장 산하 단체로 있을 땐 극장장의 예산을 받아써야 했지만, 내가 직접

예산을 따오게 되니 능력만큼 공연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100억 원까지 확보해 김지영·김주원 같은 능력 있는 무용수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주니 좋은 무용수들이 국립발레단에 오게 됐고, 파리에서 최고 안무가를 불러오고,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최고 의상을 입힐 수 있었죠. 그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단장 공모제로 바뀌더니 첫 상하이 공연을 나간 사이 제 자리가 없어졌더군요. (웃음) 그래서 2008년 그 공모에 도전한 거죠.”

2013년까지 이어진 두 번째 임기에도 예산을 적극 확보해 해외 네트워킹에 나섰고, 우리





무용수들을 세계 무대 중심에 세웠다. ‘작품은 수입하되 무용수는 수출하는’ 전략이었다. “나는 좋은 작품을 사왔지 무용수를 수입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볼쇼이·라스칼라극장에서 합동 공연을 열어 김지영·이동훈을 수출했죠. 볼쇼이극장에서 〈스파르타쿠스〉를 공연하던 순간은 잊을 수 없어요. 현지 무용수들을 군무로 세우고 김지영·김주원을 센터에 올렸으니까요. 박세은·김기민이 파리오페라발레와 마린스키발레에 갈 수 있었던 것도 19세에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무대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명문 발레단에서 비디오를 보고 그 어린 나이에 ‘백조’ 주역을 했으며 오디션 보러 오라고 했다죠. 그런 자부심이 내게 있는데, 이제야 얘기할 수 있네요.(웃음)”

돌아보면 최태지 단장 시절엔 ‘김주원·이원국 vs. 김지영·김용걸’ 식으로 발레계 라이벌 구도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경쟁 속에서 스타 만들기 전략이었다. “현역 때 나는 갈비뼈가 부러져도 무대에 서야 했어요. 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단장이 되고부터는 되도록 많은 무용수에게 일단 기회를 주자는 철학을 세웠어요. 어떤 작품에도 캐스팅이 세 커플은 있어야 서로 자극받아 더 열심히 하거든요. 신인이라도 잘할 거라고 믿어주고 기회를 주니 긴장 속에서 스스로 성장했고, 그래서 많은 스타 무용수를 키울 수 있었죠. 믿어주고, 시켜주면 되더라고요.”

우리 발레의 성장이 국격으로 이어지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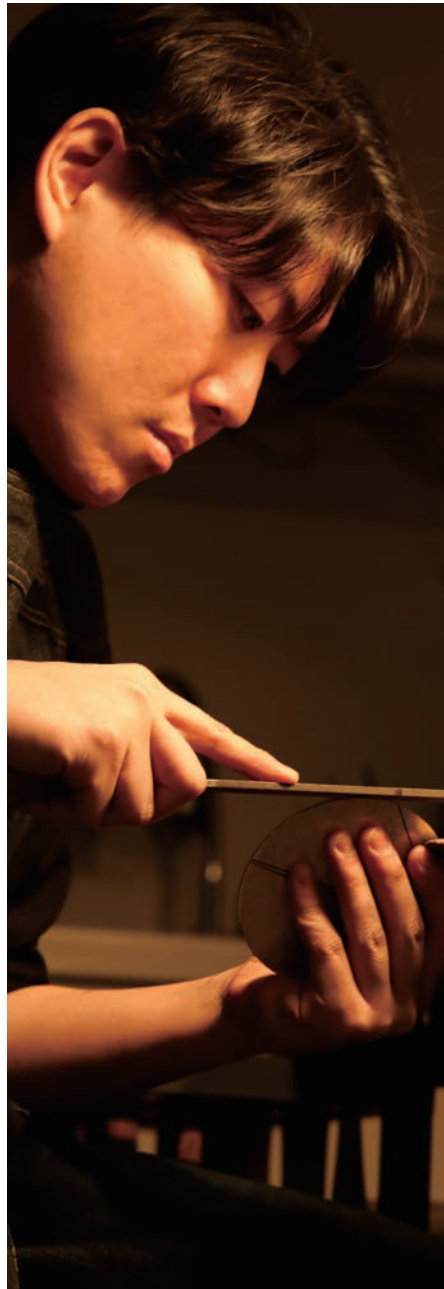
국립발레단에서의 12년을 뒤로 하고 2017년부터 광주시립발레단을 4년여 이끌면서 지역 발레단의 수준도 끌어올렸다. 좋은 공연은 투어가 오기만 기다려야 했던 지방 도시에서 수준급 발레 공연을 자급자족하게 된 것이다. “사실 발레단 운영은 그만하고 싶었는데 단원들이 직접 초청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시 하나밖에 없던 시립 발레단이니 여기가 잘 돼야 다른 지역에도 발레단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3배로 늘리고도 늘 허덕였지만, 내가 있는 곳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광주 시민들은 좋은 공연이라면 서울까지 가더라도 보는 분들이라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시다. 우리 공연은 대부분 티켓 오픈하자마자 매진됐죠.”

지금은 서울특별시 문화 명예시장과

서울문화예술포럼 공동 회장을 맡아 발레의 경계 바깥 예술가들과 폭넓은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문화예술포럼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란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획자, 행정가, 일반 시민, 학생까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자리예요. 예술가들은 자기 일과 자기 생각에만 빠지기 쉬운데, 주변도 둘러보면서 범위를 넓히게 하려는 거죠. 이런 만남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협업 기회도 만들면서 서로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그는 지난 2월 창단한 서울시발레단에도 기대를 전했다. 무용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좋은 무용수들은 다 외국에 나가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 단체가 적어서예요. 나가서 많이 배워서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자리가 없는 실정이지요.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에 무용과가 없어지는 시대에 좋은 소식인 만큼, 규모 있게 운영해줬으면 합니다. 발레단 하나 생기면 무용수뿐 아니라 분장사부터 마사지사까지 많은 스태프가 필요할 테니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창작발레 개발과 안무가 육성이 한국 발레의 급선무였다면, 지금은 한국 무용수가 창작발레로 무용계 최고 권위의 상인 ‘브누아 드라 당스’를 수상하는 시대다. 지금 우리 발레의 화두는 뭘까. “역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게 그의 대답이다. “발레나 오페라의 수준이 그 나라 문화 수준을 말해주잖아요. 지금이 우리나라의 문화 황금기라 하고, 걸보기엔 400년 역사의 프랑스 발레나 우리나라 비슷해 보일 겁니다. 돈만 있으면 화려하게 만들 순 있지만, 역사를 정리하고 아이덴티티를 정립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화 자산으로 남을 수 없어요. 임성남 국립발레단 초대 단장님이 나를 무용수로, 김혜식 2대 단장님은 나를 지도자로 만들어줬는데, 그분들이 없었다면 나도 없고 우리 발레의 세계화도 없었겠죠. 늘 아쉬운 게 우리는 문화를 역사로 남기는 데 인색해요. 러시아나 이탈리아에 가면 사람들이 예술가의 묘지에 가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에겐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느껴지죠. 우리가 지금 루이비통을 들고 다녀도 문화 지식이 없다면 계속 부자로 살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50년 미래를 보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대통령실까지 모두가 함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김두봉

시각예술/공예

b.1992

@dubong_object

신당창작아카데미 14·15기

입주작가(2023~2024)

“

저는 자연에 관심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많은 감정을 선사해줍니다. 그 감정을 가만히 앉아서 즐기고 있으면 삶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날려 보내고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관심은 대학 시절 다녀온 미국 교환학생 경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차를 타고 넓은 미국 땅을 달리며 다양한 자연을 경험했고, 이는 제 인생을 크게 바꿔준 경험이었습니다. 그중 콜로라도의 그레이트 샌드 둔 국립공원(Great Sand Dunes)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모래 언덕에 올라 몇 시간 동안 바람을 맞으며 해 질 녘을 맞이한 순간, 가슴 속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자연의 존재들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외로움, 공허함이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연이 선사해주는 이러한 위로를 영원히 소유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도시의 삶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충만한 감정이, 그 순간과 감정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

자연을 주제로 금속을 이용해 작품 활동을 하는 김두봉입니다. 금속공예를 공부했고, 금속공예의 전통 기법 중 망치성형을 이용한 기물과 오브제 그리고 금속의 화학 변화를 이용한 회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

“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그림을 끄적거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술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우연한 계기로 예술계로 발을 들였고,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 〈강렬한 흐름, Intensive Flow〉, 2023, 112×116cm
 ← 〈Natural Flow IV〉, 2023, Fine silver, 200×200×240cm

“ 제 대표작은 은으로 만든 기물인 〈Natural Flow〉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들이 모여 흐름을 만드는 것을 섬세한 질감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기물 표면에는 작은 망치의 질감이 무리를 지어 흐름을 만들고, 이는 자연이 구성되는 원리와 닮았습니다. 자연물을 먼 곳에서 보면 전체적인 형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안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힘 있게 자리잡은 흐름과 질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tural Flow〉는 자연의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작품으로, 잔잔한 표면의 질감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물과 같이 멀리서 보았을 때는 질감 없는 순백의 기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안에 담긴 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최근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를 읽고 있습니다. 싯다르타의 영원과 초월에 대한 열망과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성찰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작가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것은, 작품의 전개와 발전에는 작가 개인 내면의 성장과 성찰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내가 왜 작업을 계속하는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작품을 만들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기술이나 내용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어낸 상태입니다. 종종 이런 과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지만, 흔들려도 계속 나아가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내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싯다르타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것과 중간에 세속의 욕망을 즐기다가 그것을 버리고 깨우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성찰하고 노력해 원하는 진리를 깨닫기를 희망해봅니다. ”

“ 2022년까지는 여러 단체전과 두 번의 개인전을 통해 기물 작품을 시도했습니다. 자연 속 다양한 물질이 가진 고유한 질감과 느낌을 기물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기물이라는 한정된 형식 안에 대자연의 장대함을 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품의 스케일을 키우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형태보다는 표현 위주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평면의 금속판 위에 금속의 화학 변화를 이용한 착색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노을, Sunset Wave〉 연작과 〈강렬한 흐름, Intensive Flow〉는 노을에서 순간 보이는 빛의 물결과 색상, 강렬한 움직임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총 36장의 시리즈 평면 작품으로 제작해 이어 붙여 규모를 키웠습니다. ”

작품을 이어 붙여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낸다는 생각은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 Bigger Trees Near Water〉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50개의 캔버스가 모여 전체를 이루는 이 작품을 6주에 걸쳐 조각조각 나눠 그렸습니다. 그리곤 비좁은 작업실 환경 때문에 6개에서 10개 사이의 개별 캔버스를 제작한 후 사진 촬영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모자이크식으로 이어 붙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에 착안해 작품의 스케일을 상당히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몇 장을 제작하고 사진을 촬영해 붙여 확인하는 방식을 여러 번 반복해 36장의 시리즈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작품은 금속공예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화가리를 이용했습니다. 유화가리를 구리에 바르면 검게 착색되는데, 검은색이 되기 전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색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색 변화는 농도와 시간, 물의 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조절해 다양한 표현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작품은 앞으로의 작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줬고,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 계획은 평면 형식에 그동안 연마해온 망치질 기법을 더해 새로운 조형 작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부조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선 작업처럼 시리즈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자연물이 가진 생동감, 그것을 보는 데서 오는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



권해원

서커스

b.1991

@codesassy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상주형 단체(2022~2024)

“

컨템퍼러리 서커스 창작 단체 ‘코드세시’에서 대표이자 연출가, 그리고 서커스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권해원입니다. 저는 대중에게 익숙한 근대의 서커스가 아닌, 컨템퍼러리 서커스 장르에서 서커스를 창작 재료로 삼아 예술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어휠Cyrwheel’을 주 기예로 하고 있습니다. 시어휠은 자신의 키보다 큰 원형의 서커스 기예 도구로, 거대한 홀라후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회전운동으로 기예를 펼쳐냅니다. 코드세시는 2019년 창립한 단체로, 2022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상주단체로 선정돼 올해까지 이곳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

저는 대학에서 뮤지컬·연극을 전공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동문들과 함께 ‘시파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연극을 하자고 만든 단체였으나, 다소 장벽이 높은 연극계에 바로 도전하기보다 그보다 진입 장벽이 조금은 낮은 거리예술로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관객의 발목을 잡기 위해 더 크고 화려한 이미지를 원했고, 외발자전거와 트램펄린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것이 서커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내에는 마땅한 서커스 교육기관이 없었기에, 알음알음 기술을 습득해 거리예술과 서커스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의보다는 타의로 서커스를 시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시파 프로젝트는 2019년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2018년 겨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실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시어휠을 보게 됐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유튜브를 통해 이 기구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해외에서 시어휠을 구입한 뒤 각종 영상을 보며 기예를 익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도 흥미로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대하던 서커스를 능동적으로 마주하며 서커스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해 보고 싶어졌고, 창작의 주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파 프로젝트에서 함께하던 김현기 아티스트와 함께 서커스 작품 〈으쌔〉를 창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시어휠과 타이트와이어 기예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저마다의 짐을 짊어지고서 끊임없는 굴레처럼 돌고 도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으쌔〉는 2019년 거리예술시즌제에서 공개했고, 제가 창작한 서커스 작품으로 처음 관객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와 내 머릿속의 세계를 구현해내고 다수의 관객과 공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후 권해원이라는 창작자의 이야기와 세계를 무대 위 이미지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서커스라는 재료에 갈히는 것이 아니라 주재료로 삼아 이미지와 이야기를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코드세시라는 단체를 통해 창작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

“

서커스 장르는 지속적이고 반복된 신체 트레이닝과 기예 훈련을 수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이 단순 기예를 수행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예술가로 존재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는 예술가인가 기술자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기술을 행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기예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창작에 활용할 소스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답을 내리곤 합니다. 이런 부분이 스스로 예술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 ◀ ▶ ▶ 아티스트 권해원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흔적》(2023~)

← 코드세시의 대표작 《해원解願》(2019~)

“

《해원解願》이 저와 코드세시를 알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을 할 수 없던 때 창작한 작품입니다. '나는 예술가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세상은 예술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계속된 질문 끝에 '위로'라는 답을 내리게 됐고, 예부터 민중 깊숙이 다가가 위로해주던 '굿'의 형식과 '서커스'를 버무려 만든 작품입니다. 무대 위 제가 매개가 돼 서커스의 움직임들 통해 관객 대신 기원해주는 작품입니다. 또 다른 작품은 《돌아버리겠네》입니다. 시어회를 주기로 삼은 뒤 저는 회전 움직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놀이터의 회전 뱅뱅이를 모티브로 회전 오브제를 자체적으로 디자인·제작하게 됐습니다. 지름 2.4미터의 바퀴와 차이니스 폴을 결합한 비대칭 바퀴 오브제가 등장하며, '돌아버리겠는 현실과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자!'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한 《흔적》은 권해원이라는 아티스트가 시어회를 만나 남겨온, 그리고 앞으로 남길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전적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흔적을 남기며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

“

저는 이미지를 수집하는 데서 시작해 창작을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 이미지를 뜯어보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또 창작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와 연결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배치해보며 상상의 무대를 만들어봅니다. 거시적이고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내 주변과 나에게 발생하는 이야기에서 출발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확장하곤 합니다.

”

“

최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구본창의 향해》를 관람했습니다. 사진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작가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고, 소장품을 통해 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삶과 작업을 이어왔는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

“

지금은 서커스라는 분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커스를 바탕으로 삼아 제 예술세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서커스가 가진 아찔함, 기이함, 동물적 감각, 육체적 한계에 대한 도전 등등... 서커스적 감각을 기예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해 풀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커스적 감각뿐만 아니라 서커스 안에 숨어 있을 서커스적 감각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융합예술팀 곽해리나 새로운 물결에 몸을 싣고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서울문화재단이 품기에는 너무나 큰 자아를 가진(!) 곽해리나입니다. 저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입사한, 소위 '코로나 키즈'로 불리는 세대입니다. 한창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느라 얼마 동안은 동기들끼리 서로 얼굴도 몰랐는지요. 대학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졸업하고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일, 창작하는 일을 할 거라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으나, 창작 작업을 지속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더군요. 대안공간에서



문화예술 기획 업무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 앞서 다른 광역문화재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요. 고향이 인천이다보니 가장 먼저 인천문화재단에 발이 닿게 됐어요. 처음 근무했던 대안공간이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물리적으로 거주지와도 가까워 관심이 많았거든요. 당시 예술지원팀에서 지원사업을 담당하다 보니 예술가들과 직접 교류할 기회가 적었는데,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한 뒤로는 예술가들과 직접, 그리고 자주 마주하게 돼 굉장히 새로웠어요.

서울무용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요.

무용의 '무'도 몰랐던 제가 처음 서울무용센터에서 맡은 사업은 레지던시(입주예술가 창작지원)였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서울스테이지11, 공간 대관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지만, 만 3년간 꾸준히 운영한 레지던시 업무에 가장 애착이 있었어요. 이전에 서울무용센터는 국제 교류를 위한 레지던시 기능이 가장 주요했는데, 팬데믹 이후 국내 예술가 지원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재정비했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입주해 퇴실하기까지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수많은 이들을 맞이하고 떠나 보내기를 반복하면서,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 사업은 무엇보다 소통과 교류가



서울무용센터에서 3년을 보내며 ‘반쪽 무용인’이라고 자부했는데, 융합예술팀에 오니 다시 신입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처음 무용 장르를 만나 그 환경에 익숙해지고자 부단히 노력한 것처럼, 비록 시각예술 전공자이지만 다시금 새로운 장르를 접한 듯 융합예술에 어울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제가 바라본 융합예술은 굉장히 ‘핫’ 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화려한, 거대 자본이 투여된 것 같은 영역이었어요. 익숙한 예술보다 생소한 기술에 더 눈길이 가곤 했죠. 예술사를 이루는 여러 전환점처럼, 융합예술 또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물결이라고 느낍니다. 단순히 예술과 기술의 병치가 아니라 예술과 기술이 융합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상상력이 등장하리라는, 적어도 제게는 그런 기대가 가득한 분야입니다. 저는 올해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A 트랙(신진)을 맡았는데, 신설된 지원 트랙이라 더욱 실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인터뷰 중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웃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게 영감을 주는 건 ‘대화’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또 누군가는 직접적인 체험으로 경험을 얻는다면, 저는 만족스러운 대화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지금껏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와의 대화에서 새로운 방식의 해결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 삶이 한층 다채로워지는 것 같은 충만함을 느껴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 구조 자체가 예술가와 밀착되니 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하루에 1/3 넘는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머물다보니 가끔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되더군요. (웃음) 특별한 에피소드보다는 매일매일 소소하게 즐거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입주예술가분들이 종종 공용 주방에서 요리를 해주셨는데, 어쩜 다들 그렇게 솜씨가 좋으시던지요. 그리고 저는 서울무용센터에 자주 들르는 고양이 친구들의 밥을 맡아 챙겼는데요. 센터에 워낙 애묘가도

많고, 이 친구들이 공유화가 열리는 날마다 깜짝 출연하는 바람에 동물 친구들과도 함께한 순간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소소하지만 많은 일상을 공유하면서 다소 딱딱한 느낌의 담당자와 예술가 사이가 아니라, 협력 관계 혹은 한 팀이라는 결속이 생긴 것 같아요. 서울무용센터에서 리서치한 작업이 본 공연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지난해 말부터 융합예술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가장 정의하기 어려우면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장르지요.

스무 살 서울문화재단에 축하 인사를 건네주세요.

아직 입사 4년 차인 제가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호에 인터뷰하게 돼 영광이면서도, 사실 무척 부담스러웠는데요. 한편으로는 단 한 번뿐인 재단의 20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 뜻깊습니다. 특히 스무 살은 성인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서울문화재단도 20년 동안 많은 도전과 경험,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화예술계 안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세계로 첫발을 내딛는 스무 살의 마음처럼, 떨리면서도 설레는 재단의 다음 행보를 기대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스무 살이 된 것을 축하해!

대학로극장퀴드 2024 기획공연 프로그램

대학로극장 퀴드가 올해의 기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새로운 예술적 도전과 실험을 통해 시민 향유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예술가 그리고 그 예술의 깊이와 본질에 방점을 둔 작품을 엄선해 무게감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무용·전통·연극 등 퀴드가 주목하고 선택한 신작·레퍼토리 기획 공연을 처음 선보이며 관객의 큰 호응을 얻은 '퀴드 초이스'는 올해 전통·연극 장르에 집중해 기획됐다.

봄이 시작되는 계절 4월, 전통음악으로 퀴드 초이스의 포문을 연다. 거문고 명인이자 제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자인 허운정은 그간 진행해온 실험적인 행보의 토대가 되는 거문고와 우리 전통음악 본연의 아름다움과 소리에 집중한 작품을 선보인다. 더불어 대금 연주자 이아람, 소리꾼 김윤희, 전자음악 연주자 심준보가 만나, 판소리와 삶을 위로하는 노래로 관객들을 만난다.

JTBC <슈퍼밴드2>로 알려져 주목받은 거문고 연주자 박다울, 전통의 한계와 가능성을 확장하며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문고 연주자 박우재가 특별한 만남을 이룬다. 이번 공연은 거문고가 가진 무한의 매력을 조명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개성과 행보의 두 아티스트가 만나 흥미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입과손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구구선 사람들>도 퀴드에서 만날 수 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 서사에 전통 판소리와 입과손스튜디오의 감각과 각색을 더해 재해석한 작품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올해 대학로극장 퀴드가 선택한 연극 장르의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의 신작 <베를리너>(극작 이실론)는 우수한 창작희곡을 발굴하고, 극작가의 실험적 창작 활동과 시도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1회 서울희곡상 수상작이다. 대학로극장 퀴드가 가진 제작

↓ 아래나형 무대와 스탠딩 객석이 특징인 2023 퀴드페스타



시스템과 참신한 대본이 만나 프로덕션 과정을 거치면서 극장 공간과 구조 특성에 맞는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인간의 내면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무대 위에 드러내는 연출로 작품마다 찬사를 받는 연출가 한태숙과 신예 극작가 이실론의 만남이 큰 기대를 모은다.

또한 연출가 박근형과 퀴드의 만남도 준비돼 있다. 현시대 소시민의 삶과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통해 매 작품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박근형 연출만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평단의 호평을 받은 계절 연작 시리즈 〈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두 작품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계절 연작 시리즈 세 번째 신작까지 이어진다. 박근형표 공연 서사를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만나보기를 바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즌 공연을 준비해 시민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뜨거운 한여름 밤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퀴드 여름페스타’는 올해도 화려한 라인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글렌체크, 키라라, 윤상×이준오, 해파리까지 전자음악의 중심에서 새로운 일렉트로닉 기법을 확장, 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실험적인 무대 설치와 전석 스탠딩 공연을 시도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를 예고한다.

이외에도 퀴드 클래식(음악)이나 무용 공연 등 여러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풍성한 라인업으로 대학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더불어 예술인의 활발한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대관 공연을 진행하는 등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자 한다. 대학로극장 퀴드의 프로그램은 3월 이후 세부 내용과 일정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며,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누리집(quad.or.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로극장 퀴드 2024 기획공연 라인업

4월	[퀴드 초이스] 거문고 허윤정 [퀴드 초이스] 거문고 박다울·박우재 [퀴드 초이스] 대금 이아람, 판소리 김윤희, 전자음악 심준보
5월	[퀴드 클래식] 클래식 음악 콘서트(예정)
7월	[퀴드 초이스] 〈춤.판〉 (가제, 출연진 추후 공개)
8월	[퀴드 여름페스타] 글렌체크, 키라라, 윤상×이준오, 해파리
9월	[퀴드 초이스] 입과손스튜디오
11월	[퀴드 제작] 〈베를리너〉 (연출 한태숙, 작 이실론)
12월	[퀴드 초이스] 〈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연출 박근형, 극단 골목길)

*공연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퀴드 제작 〈신파의 세기〉(극작·연출 정진세) ©BAKi

↓ 2023년 퀴드 제작 〈다페르튜토 퀴드〉(연출 적극) ©studioAL



시내 곳곳이 무대라면, 서울스테이지 2024

서울문화재단은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시민을 위한 예술공감 콘서트인 '서울스테이지11'을 야심 차게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곳곳의 문화예술 공간11곳에서 매월 첫째 목요일마다 클래식 음악·재즈·연극·무용·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수놓았다. 지난해까지 2년간 총 130회 공연을 개최, 예술인 600여 명이 참여했고, 1만 5천여 명 넘는 시민이 관람하며 재단의 대표적인 시민 문화 향유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사업 3년 차를 맞은 2024년에는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서울 전역에서 1년 내내 시민과 만나는 연중 기획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사업명을 '서울스테이지 2024'로 바꾸고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서울스테이지' 삶의 터전으로 다가가다

올해 서울스테이지 2024는 예술과 만나는 '공간의 확장'과 '일상 속 접점 확대'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개편했다.

먼저, 예술과 만나는 공간의 확장 측면에서 기존에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연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11개 공간을 5개로 줄이는 대신 서울 곳곳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대폭 확대한다. 물론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은 공간에 맞는 장르를 선정하고 콘셉트를 강화해 내실을 다졌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는 전통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 간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청년예술청은 모던 클래식 음악을 토대로 영화음악·뮤지컬음악 등



다양한 장르와 미디어아트를 연계해 트렌디하고 실험적인 공연으로 꾸민다. 서울연극센터는 공간이 가진 장르 특성을 살려 연극배우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낭독극 공연 시리즈를 진행한다.

이어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퇴근 후 음악이 있는 저녁' 콘셉트로 재즈·클래식 음악 장르 중심의 음악 공연을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서울스테이지 2024의 공연 장소가 된 노들섬에서는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 분위기에 맞는 인디음악 및 대중음악 아티스트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재단 운영 공간에서 진행되는 정기공연 외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시민 곁에 찾아가는 공연도 연중 수시로 개최된다.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5회기량 추진된

찾아가는 공연은 올해 20회 이상으로 확대, 이를 통해 시민이 공연 장소로 '찾아오는' 공연 중심에서 다양한 공연이 삶의 터전으로 '찾아가는' 공연 중심으로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술과 만나는 공간 확장의 일환으로 '피아노 서울'이 함께 추진된다. 서울 시내 곳곳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리 피아노를 설치하는 이 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은 아티스트의 공연을 관람하는 간접적인 문화예술 참여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피아노 서울'은 지난해 연말에 주요 다중 이용 지역 6곳(대학로, 명동, 홍대앞, 노들섬, 반포한강공원 등)에 시범적으로 거리 피아노를 설치했고, 올해는 시내 곳곳에 피아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일상 속 선물 같은 예술 경험이 되기를

다음으로 예술과 만나는 일상 속 점점 확대 측면에서 기존에 매월 첫째 목요일 정오 또는 오후 2시에 동시 운영하는 것으로 고정돼 있던 재단 공간 정기 공연 일정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펼쳤다. 기존에는 시민 한 사람이 한 달에 전체 정기 공연 중 1편만 선택해서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달에 열리는 모든 정기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예정된 공간별 공연 일정을 살펴보면, 대학로센터 공연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정오, 청년예술청 공연은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정오에 각각 열린다. 서울연극센터는 5·7·9·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노들섬 공연은 3·6·9·11월 마지막 주(9월은 첫째 주) 금요일 오후 5시와 토요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

아울러 시민에게 우수한 아티스트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참여 예술인 라인업 역시 더욱 풍성하게 마련, 공연 장소 곳곳을 찾을 예정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첼리스트 양성원,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기타리스트 박주원,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소리꾼 이희문, 퓨전국악밴드 두번째달, 싱어송라이터 백현진·질은·하림,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제이레빗·몽니·9와 숫자들·잠비나이, 연극배우 강기동·강말금·김종태 등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스테이지 2024 공연 관람 시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열고, '피아노 서울' 연주 영상 챌린지를 준비하는 등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꾸민 경품이 걸린 윈오프라인 이벤트를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이다.

올 한 해 시민의 일상 공간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채롭게 진행될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연중 기획 '서울스테이지 2024'. 더 많은 시민이 매월 마지막 주 서울스테이지 2024를 통해 일상 속 선물 같은 특별한 문화예술 경험을 누리길 기대한다.

모든 공연 정보는 서울스테이지 2024 누리집(sfac.or.kr/seoulstage/main.do)과 인스타그램(@seoul_st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회 서울예술상 수상자 발표

지난 2월 28일, 수준 높은 예술 창작으로
예술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한 역량 있는 순수 예술가를 선정해
수상하는 제2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이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예술을 향한
올곧은 열정으로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예술인의 축제였다.

‘서울예술상’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작 및 2023년
서울에서 발표된 예술 작품 중 경쟁력 있는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순수예술 분야의 시상 제도다.
우수 작품을 선정해 예술인과 예술단체에는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작품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 연극 분야 최우수상 연극집단 청춘오월당 <우리 교실>



높이며, 유통과 확산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좋은 작품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올해는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에 이어
다원까지 장르를 확대하고,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선정작 외에 2023년 서울에서 발표된
작품과 활발하게 활동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위원 특별상’을 새롭게 제정했다.

2023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작 526건
중 326건이 후보작으로 등록했고, 분야별
선정위원단 총 54명이 현장 평가, 서류 심의,
토론 심의, 최종 선정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수상작을 선정했다.

← 대상 수상작 99아트컴퍼니 <제ver.3 타오르는 삶>
→ 음악 분야 최우수상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바흐 마태 수난곡>
↓ 전통 분야 최우수상 <2023 전통창작음악집단 4인놀이 10주년 기념 콘서트 "X">



제2회 서울예술상 연극 분야 최우수상은 연극집단 청춘오월당 <우리 교실>, 프린티어상은 극작가동인 팔호 <다른 부영>, 무용 분야 최우수상은 99아트컴퍼니 <제ver.3 타오르는 삶>, 프린티어상은 시나브로 가슴에 <Earthing>, 음악 분야 최우수상은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바흐 마태 수난곡>, 프린티어상은 이문희 작곡발표회 <재활용협주곡>, 전통 분야 최우수상은 <2023 전통창작음악집단 4인놀이 10주년 기념 콘서트 "X">, 프린티어상은 방지원 <무조巫祖>: 순환으로부터, 시각 분야 최우수상은 신미경 개인전 <시간/물질: 생동하는 뮤지엄>, 프린티어상은 김동희 개인전 <HALL 2>, 다원 분야 프린티어상은 이연석 <눈 먼 입 Eyes Far Lips Act.2>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의 영광은 <제ver.3



타오르는 삶>을 발표한 99아트컴퍼니에게 돌아갔다. 시상자로 각 예술 분야의 원로예술인과 전년도 수상자가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제1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자 허윤정은 축하공연 무대에도 올라 시상식을 빛냈다.

올해 신설된 심사위원 특별상은 공연 부문 3작품, 시각/다원 부문 1작품, 장애예술인 부문 1명을 선정했다. 공연 부문으로는 작당모의 <싸움의 기술, 줄>, 댄스시어터사하르 창작발레 <레미제라블>, 배승혜 <Dialogues II "Beethoven: Waldstein-Repetition">, 시각 부문은 김정욱 개인전 <모든 것 all things>가 선정됐다. 장애예술인 부문은 시각장애 가가금 연주자 김보경을 선정했다.



↑ 시각 분야 최우수상 신미경 개인전 <시간/물질: 생동하는 뮤지엄>

많은 예술인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린 서울예술상은 올해 대상 범위를 확대해 예술인을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또 제2회 서울예술상부터는 평가위원을 늘리고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시상 제도의 권위와 수상자의 자부심을 높였다.

제2회 서울예술상이 주목한 작품에 많은 격려의 박수와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양질의 예술 작품을 발굴해 좋은 작품이 꾸준히 지원받고,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문화 향유와 관광, 두 마리 토끼 잡는 뉴욕

도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가득할 때 여행지로도 매력적인 곳이 된다. 뉴욕에는 뉴욕어 삶의 한 조각을 경험하려는 이들이 가득하고, 파리에 파리지앵처럼 세련된 옷차림으로 도시를 걷고 바게트를 맛보려는 이들이 많다. 특히 뉴욕은 현지인의 일상에 녹아 있는 문화 행사와 경험이 여행객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 세계적인 미술관,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 메트 오페라와 브로드웨이 뮤지컬, 미술관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등 뉴욕의 문화생활을 떠올리며 뉴욕 여행을 검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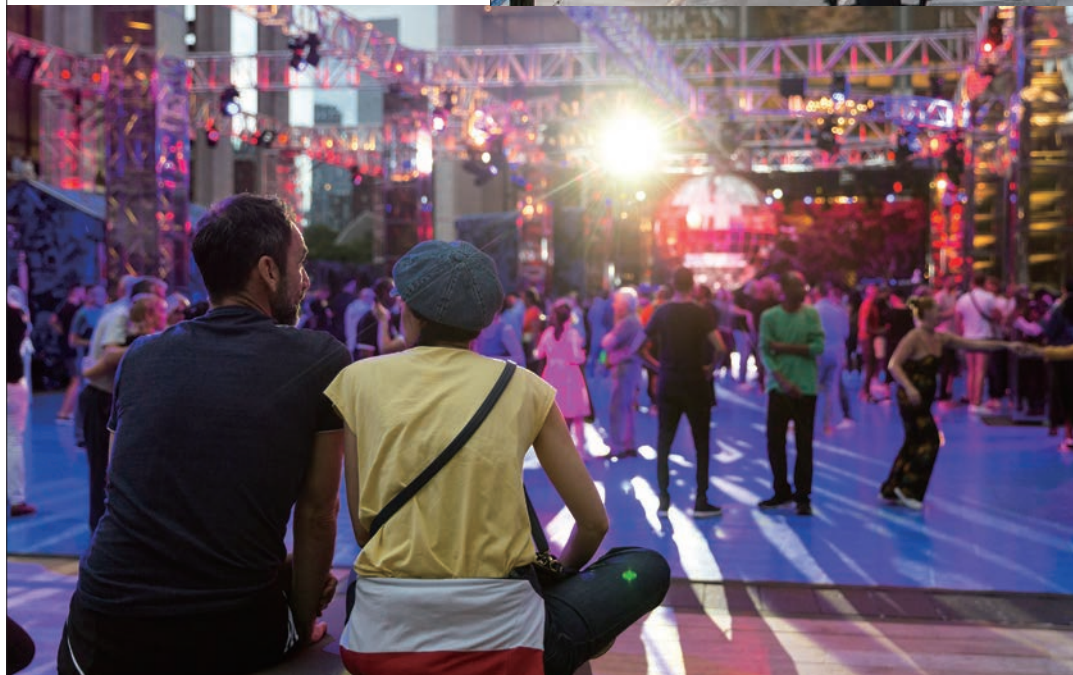
뉴욕에서의 삶은 뉴욕어에게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갖가지 공연이 열리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간식과 돛자리를 챙겨 뉴욕 필하모닉의 무료 공연을 보기 위해 센트럴 파크 Central Park 로 향하고, 무료 셰익스피어 연극 Free Shakespeare in the Park 을 보기 위해 줄을 선다. 무료입장 시간에 맞춰 친구들과 미술관 앞에서 만나고 '뉴욕 레스토랑 위크 NYC Restaurant Week'에는 손꼽아 기다리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한다. 다양한 문화 행사가 뉴욕 문화생활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에 뉴욕어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예술을 즐길 수 있다. 이처럼 현지인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들은 도시 곳곳에 활력이 넘쳐나게 만들고, 뉴욕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며, 나아가 특정 기간에 뉴욕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뉴욕의 문화기관은 비영리 단체이기에 세금이 면제되며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중이 문화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휘트니 미술관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에 이어 구겐하임 미술관 Guggenheim Museum 까지 차례로 뉴욕의 주요 미술관이 입장료를 30달러(한화 약 4만 원)로 인상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티켓 가격은 팬데믹 기간에도 꾸준히 높아져 2023년에는 평균 135달러(한화 약 18만 원)를 기록했다. 2024년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이 16달러(한화 약 2만 2천 원)라는 점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에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은 무료입장과 할인 행사 등을 기획한다.

가장 먼저 입장료를 인상한 휘트니 미술관은 올해 1월부터 무료입장 요일을 하루 더 늘렸다. 휘트니 미술관의 디렉터 스코트 로스코프 Scott Rothkopf는 지난 12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입장료가 (미술관의) 접근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기부형 입장 pay-what-you-wish 역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하는 정책이 아니기에, 직관적으로 연령과 거주지와 관계없이 조건 없는 무료입장 시간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일반 대중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미술관의 취지를 전했다. 미술관은 일차적으로 현지 대중의 발걸음을 미술관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부담 없이 발걸음을 미술관으로 향하게 하는 이벤트의 일환이 되고, 많은 여행객이 이 시간에 맞춰 일정을 짜게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게 하려는 노력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또 다른 기관인 공원, 비영리 단체인 공연장에서도 이뤄진다.





↑ 사람들이 활기가 넘치는 뉴욕시 ©NYC Tourism + Conventions
 < 여름 시즌 링컨센터에서 여는 무료 축제 'Summer for the City' ©Lincoln Center

덕분에 뉴욕의 공원은 여름 내내 무대를 세워 무료 공연을 열고, 링컨센터 같은 공연장은 'Summer for the City' 같은 무료 축제를 기획한다. 매년 여름 열리는 문화 행사는 평균 티켓값이 300~400달러에 달하는 메트 오페라와 뉴욕 필의 공연을 부담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센트럴 파크·브라이언트 파크Bryant Park 등 뉴욕의 공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야외 공연이 돼 여행객을 도시의 매력에 반하게 만든다.

그뿐만 아니라 뉴욕은 예술 외에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요리부터 최고급 요리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식문화 역시 발달한 도시다. 수많은 레스토랑이 발길을 잡아끌지만, 세금과 팁이 추가로 계산되는 레스토랑에서의 외식은 뉴욕커에게도 종종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런 이들에게 다양한 요리와 다이닝 문화를 부담 없이 즐기게 해주는 행사가 바로 뉴욕 레스토랑 위크다. 뉴욕 레스토랑 위크는 1992년 일회성으로 기획됐지만, 당시 19.92달러(2022년 42달러, 2024년 현재 30/45/60달러 옵션으로 변화)라는 합리적인 금액에 다양한 레스토랑의 요리를 코스로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어 3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행사를 기회로 뉴욕커들은 평소에 가지 못하던 고급 레스토랑을 찾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요리를 시도하곤 한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미식가들은 이 기간에 뉴욕을 찾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요리를 즐기는

여행을 하는데, 최근 뉴욕관광청New York City Tourism + Conventions은 이 기간을 '뉴욕 호텔 위크NYC Hotel Week',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NYC Broadway Week'와 함께 홍보하며 여행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K-팝,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음식을 통해 점점 많은 여행객이 서울을 찾고 있다. 다양한 매체에서 본 서울의 삶을 찾아온 여행객에게 매력적인 경험은 한강 변의 야시장과 홍대 앞 버스킹, 청계천의 화려한 조명과 눈 내린 덕수궁 돌담길 등 오직 이 도시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놓치고 있는 서울 생활과 문화 행사의 조각을 잘 엮고 다듬다보면 서울 시민의 삶에 예술을 더하고, 여행객의 눈에 더욱 다채로운 서울의 색깔을 비추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공연물품
대여·위탁·거래
플랫폼

2023. 12. 20. 정식오픈

www.restageaseoul.or.kr

리스테이지
서울

re:
stage

쓰는
다시 공유하는 무대
연결되는

seoul

SEOUL
MY SOUL



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문의 | 02-758-2163 restage@sfac.or.kr



COLLAGE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수묵화 거장' 박대성의 뜻심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줍는다

말을 본 사이, 말본새—입찬말과 에멜무지로

걷다가 마주친 춤

'댄서'라는 직업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언제 어디서나 '육재비'

illust ©slowrecipe

‘수묵화 거장’ 박대성의 독심

박현주 뉴시스 미술전문기자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 지난해 해외 순회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온 ‘수묵화 거장’ 박대성 화백이 증명했다.

미술 한류 시대, 박 화백은 K-아트의 선봉에 있다. 수묵화가 최초로 2022년 독일·카자흐스탄·이탈리아에 이어 202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다트머스대 후드미술관 Hood Museum of Art,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찰스왕센터 Charles B. Wang Center, 메리 워싱턴 대학교 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등 해외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특히 LACMA 전시는 한국 작가 최초로 주목받았는데, 원래 일정보다 두 달간 연장 전시되면서 미국에서 화제를 모았다.

한국에서와 달리 전시 때마다 관람객이 북적였다. 가로 4미터, 세로 7미터가 넘는 대작의 위용과 함께 붓질의 필력에 감탄한 관람객과 물질문명과 대비되는 정신성을 담은 한국 그림을 새로 봤다는 평론가의 호평이 이어졌다. “우리 한국화를 마치 전혀 새로운 것을 보듯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을 보고 더 놀랐다”는 박 화백에게도 오로지 수묵화에 매진해온 자신의 작업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1945년생으로 여든을 바라보는 박 화백은 일평생 ‘보이지 않는 뿌리’를 찾아 한국화, 우리 그림에 정진해왔다.

그의 작품에는 ‘법고창신 法古創新’의 정신이 녹아 있다.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의 양분화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는 그의 수묵화는 지필묵 紙筆墨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장르를 넘나드는 시도를 통해 과거와 동시대 미학을 융합한 ‘현대 수묵화’라는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했다.

수묵화 거장이 되기까지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정신’이 그를 일깨웠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성공한 화가다. 그는 우리 현대사 동족상잔의 처참한 희생양이었다. 6.25 전쟁 때인 다섯 살에 고아가 됐고 팔 하나를 잃었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다. 혼자 놀던 어린 시절 병풍에 있던 그림을 따라 그렸고, 어르신들의 ‘고놈 그림 참 잘 그린다’는 칭찬이 힘이 됐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림만 그렸고, 먹과 붓 맛에 취하게 됐다.

수묵화는 누구보다 자신 있던 그는 20대 당시 국전을 섭렵했다.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 참가해 여덟 번이나 입선했고, 이어 1979년 중앙미술대전에 출품한 수묵 담채화〈상림〉이 대상을 받으면서 ‘한쪽 팔 화가’의 이변을 일으켰다. 당당히 ‘수묵화가 박대성’으로 두각을 드러낸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중국 북경·계림·연변 등지로 화문기행 畫文紀行을 떠나거나 1988-1989, 실크로드 1993-1995를 방문해 명산대천 名山大川의 이국적인 풍경을

현장에서 스케치하는 등 창작의 바탕을 넓히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먹과 서화 연구에 정진하며 현재까지도 명필가의 서법을 습득하고 서작書作 원리를 배우는 임서臨書로 매일 아침을 시작한다고 한다.

1990년대는 그의 최고 전성기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림이 팔려나갔고, 부자 화가가 됐다. 그러다 돌연 현대미술을 공부하겠다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일 년도 안 돼 깨달았다. 수채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먹의 번짐처럼 퍼지는 수채화 그림을 보던 순간,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불국사가 떠올랐고 귀국하자마자 경주 불국사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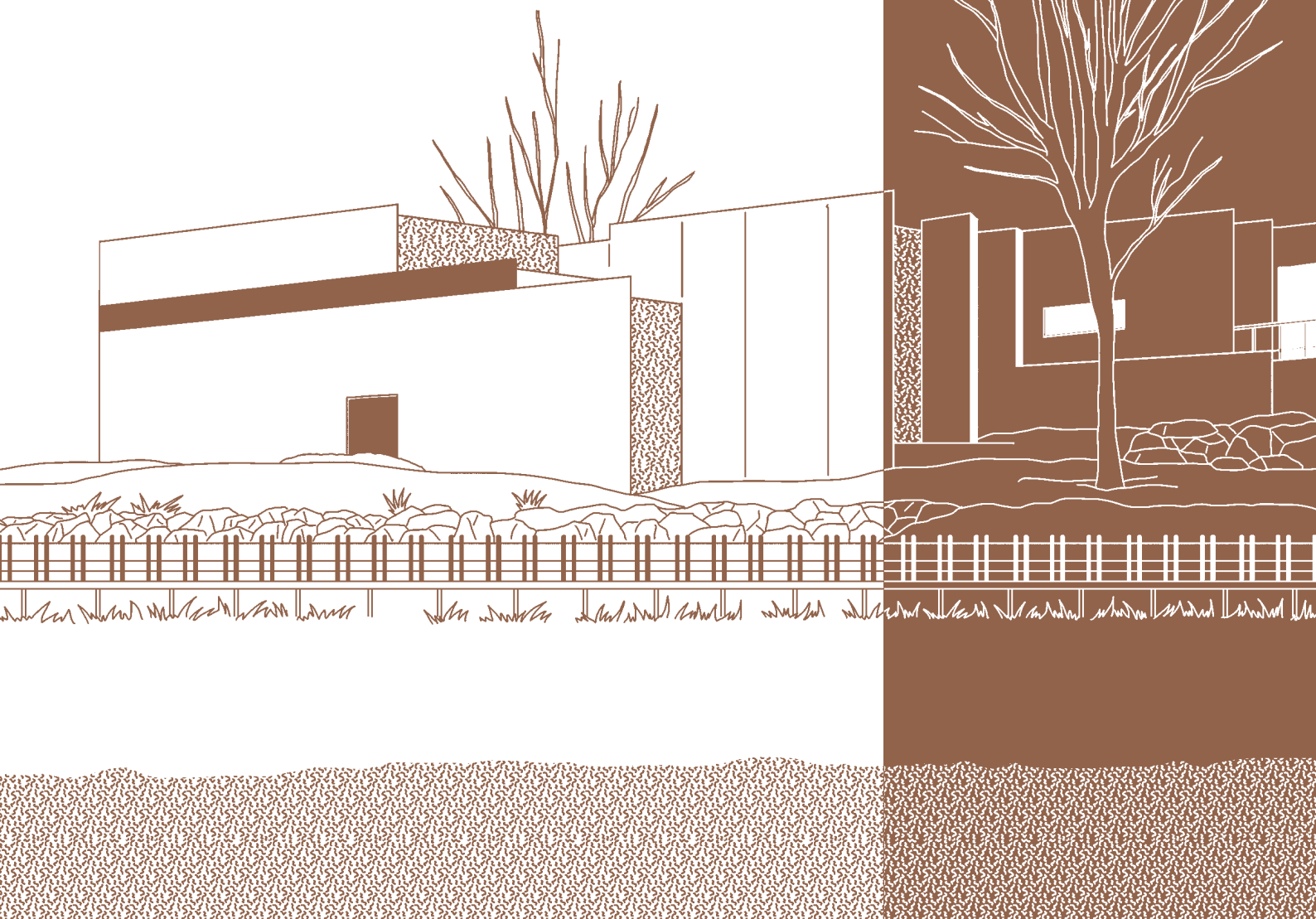
경주가 고향도 아니고, 더욱이 천주교 신자인 그의 일탈 같은 작업은 박대성을 ‘불국사 작가’로 올려놓는 계기가 됐다. 1996년 인사동에서 연 전시에 공개한 가로 8미터, 세로 2미터 크기의 〈불국설경〉은 “그림에서 광채가 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눈을 그리지 않았지만, 설경이 펼쳐지는 묘한 그림이다.

불국사 작가로 경주에 뿌리를 내린 그는 작품 830여 점을 기증하며 경주 솔거미술관 건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2015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솔거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이 미술관을 찾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면서 박 화백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가 3천 명을 넘기기도 했다.

오로지 순도 ‘100% 먹 맛’으로 미술시장을 평정한 그는 동서양을

떠난 붓질에서 자유롭다. 무르익은
필치가 그린 대자연의 풍경은 생동하는
기운은 물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백이야말로 '한국 수묵화'의
정체성이다. "어색하게 내 작품을
서구화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그의
고집과 뜻심이 이룬 해외 순회전의
쾌거는 K-아트의 나비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숙제는 있다.

세계에서는 한국화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데, 정작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한국화 전공이 없어질 정도로 수묵화가
내팽개쳐진 현실이다. "현대미술도
중요하지만, 선조들이 물려준 좋은
문화유산인데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했으면 한다"는 박 화백의
쓴소리가 '한국화 살리기' 대안처럼
들린다.



말을 본 사이, 말본새

—입찬말과 에멜무지로

오은 시인

입말과 글말이 있다. 입말의 사전적 의미는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다. 보통 즉각적으로 튀어 나가기 때문에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신중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한 번, 목구멍에서 또 한 번, 말을 정련精鍊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대화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기에 생략도 가능하고, 과장된 표현을 비언어적 요소에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입말이 순간순간 얼마나 총천연색으로 빛날 수 있는지 깨닫는다.

글말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주로 글에서 쓰는 말”을 뜻한다. 입말이 ‘표현’을 위한 것이라면, 글말은 ‘서술’을 위한 것에 가깝다.



“아, 뜨거워!”라는 놀람은 글말로 표현될 때 맥락을 담아야 한다. 현장에서 입말로 처리했던 것을 글말로 옮길 때에는 읽을 사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소리다. 글말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서 입말이 아닌 글말이 드러날 때, 글말 속에서 불쑥불쑥 입말이 튀어나올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다. 책의 문장이 일상에서 들려올 때면 종이 속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황홀하다. 반대로 바로 어제 나는 대화가 책 속에서 발견될 때면 귀가 활짝 열리기도 한다.

‘말본새’라는 단어를 책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대화 속에서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은 사뭇 달랐다. 책에서는 “말하는 태도나 모양새”라는 사전적 의미답게 특별히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이 없었다. 말본새가 상냥하구나, 말본새가 거칠구나, 말본새에 예의가 제법 갖추어져 있구나 등 말본새 한가운데 아로새겨진 ‘본’에 집중하며 단어를 대했던 듯싶다. 말과 새 사이에 자리잡은 ‘본’이 말이 튀어나가는 사이에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었다. 글말에서의 말본새는 이미 ‘말을 본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책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있으니까. 그 인물이 특정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반면 입말에서의 말본새는 일시적인 격정을 수반하는 게 대부분이다. 발음할 때 ‘본’이 [뽀]으로 소리 나는 것부터가 그렇다. “말본새가 그게 뭐야!” 같은 불호령에도, “개는 말본새부터 틀려먹었어.”와 같은 단정에도, 순간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 말본새를 지적받은 사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렵다. 평소처럼 말한 것이라고 밝힐 경우,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헛나갔다고 부연한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말본새의 중심에는 태도와 모양새가 있기 때문이다. 말을 듣는 대상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입말의 현장에서 말본새가 문제시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을 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셈이다.

말본새에 둔감한 사람은 흔히 같은 말도 다르게 하곤 한다. 제아무리 좋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고 깎아내린다거나 깔끔하게 축하만 전해도 충분한 상황에서도 운이 좋았다는 둥, 혹시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느냐는 둥 뒷말을 이어나간다. 하나 마나 한 소리다. 듣는 이는 금세 피로해지고 상대의 의중을 헤아리기 위해 쓸데없는 기운을 써야 한다. 말본새에 둔감한 사람이 말밑천이 떨어지면 헛소리하기 십상이다. 가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으련만, 바닥난 말밑천 때문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기도 한다. 맥락과 아무 관련 없는 예를 대화에 끌고 들어올 때,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알 것이다. 아, 이 대화가 산으로 가겠구나. 뒤늦게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깨달은 이가 방금 한 말이 장난말이었다고 사과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렸다. 방금 대화는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늦추어도 지금은 방금이 될 수 없다. 입말이 이렇게나 어렵다.

발뺨하듯 말뺨해도 소용없다. ‘말뺨’은 제 이야기의 약점을 알아채고

빠져나오려는 것인데, 이미 었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한번 망가진 분위기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앙금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는 미심쩍음으로 남을 것이다. 해소되지 않아서 입안이 또다시 간질거린다. 말을 덮는 것이 또 다른 말일 거라고 과신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침묵이 그 자리를 메워줄 수도 있을 텐데, 말로 진 천 낭비를 다시 말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별생각 없이 입찬말하게 마련이다. 입찬말은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믿고 지나치게 장담하는 말”을 뜻한다. 호언장담 정도가 비슷한 말일 텐데, “다음에는 확실하게 책임질게.”나 “나 만지? 내가 누군지 알잖아?” 같은 말로 대화의 새로운 물꼬를 트려고 한다. 입이 무거워져야 할 때 입을 채우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입찬말을 하는 사람은 입찬말‘만’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반면 늘 말본새를 생각하는 이는 어떤 말을 해도 경우에 어긋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이는 흔히 조심스럽다는 평가를 받곤 할 것이다. 다소 소심해 보이는 데서 오는 신중함에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담겨 있을 것이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담는 형식이 대화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에멜무지로’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이도 바로 그다. 이 단어는 부사로 “단단하게 묶지 아니한 모양”을 뜻하는데, ‘입찬말’로 강경하게 관계를 이끌려는 사람과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슨한 고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관계에

엮이고 묶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팽팽한 관계는 긴장 덕분에 매력적이지만 바로 그 긴장 때문에 삼시간에 끊어질 수도 있다. 입말로 만들어진 모든 관계가 팽팽하다면, 삶의 여유는 점점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에멜무지로’의 두 번째 뜻은 “결과를 바라지 아니하고, 헛일하는 셈 치고 시험 삼아 하는 모양”이다. 많은 이들이 ‘대체 왜?’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끔 복권을 사는 것도, 10년 뒤의 내 모습을 그려보며 슬며시 미소 짓는 것도,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든 낙관하는 것도 ‘에멜무지로’ 덕분에 가능하다. 말본새를 갖춘 사람이 에멜무지로 건넌 말이 상대방의 귀에 스며들 때, 관계는 비로소 무르익기 시작한다. 입말이든 글말이든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것이다.

‘댄서’라는 직업

정옥희 무용평론가

조금 지난 일입니다만, TV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리즈가 화제가 된 후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직업군에 ‘댄서’가 등재되었다는 뉴스, 기억나시지요? 이 뉴스를 두고 그동안 몰래만 봤던 댄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감격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아직도 댄서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고 의아해하던 이도 있었지요. 오늘날엔

수많은 직업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댄서’의 직업 등재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춤추는 직업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닙니다. ‘무용인(무용가)’이 있었죠. 하지만 댄서와 무용인은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번역하자면 뜻은 같겠지만,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는 다릅니다. ‘무용인’이 주로 극장에서 관람하는 예술춤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면, ‘댄서’는 대중춤을 행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독특한 구분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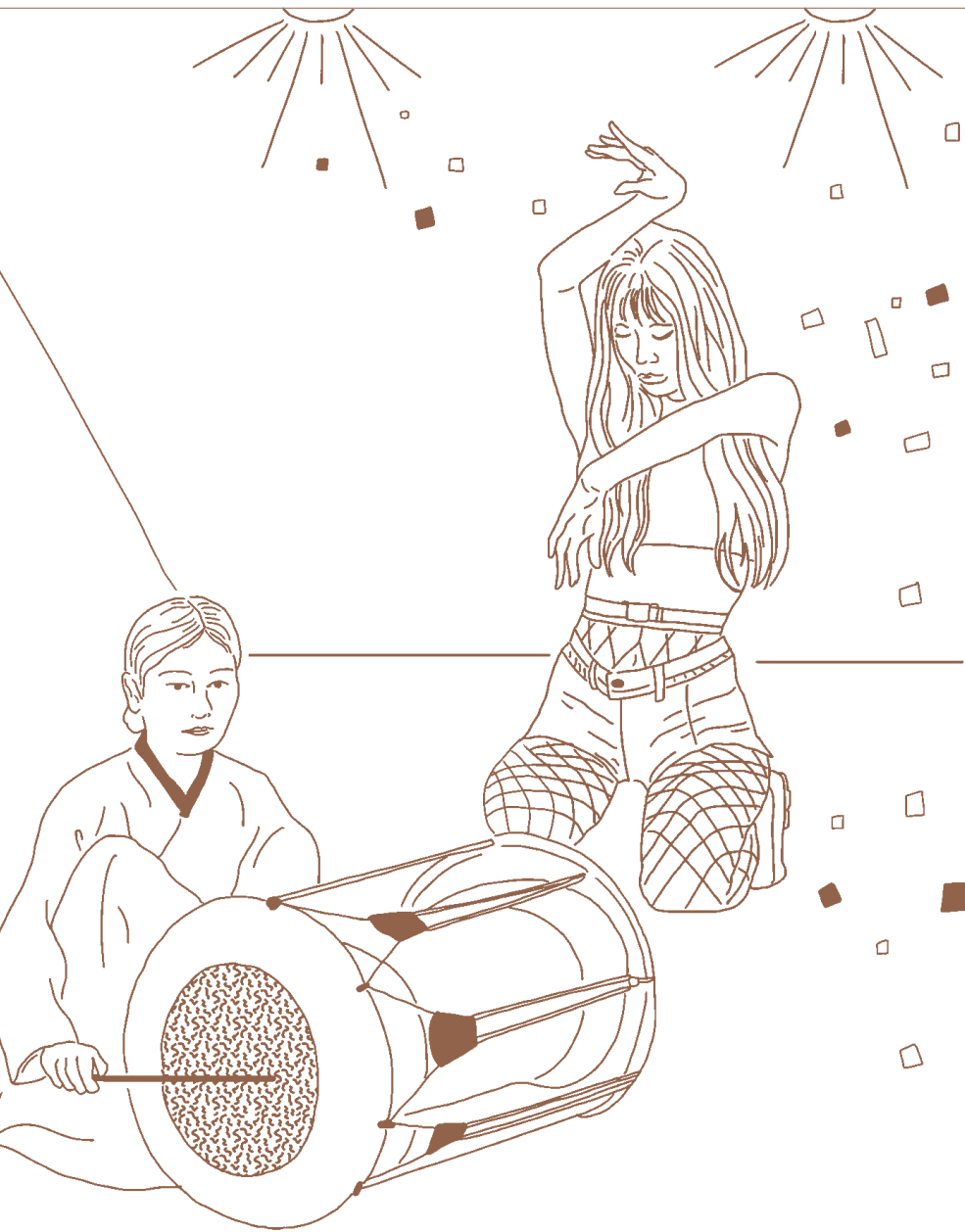
춤추는 직업의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생이 있었습니다. 기생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왕실이나 관청의 공식 행사에서 악기와 가무를 담당하던 여성들입니다. 여염집 여성은 사회 활동을 하지 않던 전근대 사회에서 기생은 비록 천민 신분이지만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으로서 교육받고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가 몰락하고 급작스레 문호가 개방되면서 기생의 사회적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악가무와 시사회에 능통하던 그들의 예술성은 낡은 것이 되었고 접대와 매춘에까지 떠밀렸습니다. 서양식 극장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연예인으로서 활약한 이들도 있었지만, 기생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터부가 강화되면서 한때 기생이었던 이들은 점차 몸을 숨겼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생이 얼마나 천시되었는지는 지난 시대 예인을 소개한 책인 진옥섭의 『노름마치』²⁰¹³ 한 대목에 구구절절 드러납니다. 손자 소풍에 따라나선 할머니가

한 곡 뽐으라는 주위의 재촉에 못 이겨 마이크를 잡았다가 ‘배운 가락’이 나오자 모두 “기생이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손자가 울고 아들과 며느리가 타박하자 할머니는 그날 밤 음독자살합니다. ‘네가 기생이냐’라는 말이 모욕이던 시절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원로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사업이 활발하지만, 기생이었던 분들은 찾기도 어렵거니와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생만큼이나 낙인찍힌 이들이 댄서입니다. 개화기에 댄스는 서양에서 유입된 각종 춤을 중립적으로 일컬었지만, 곧 사교춤과 여흥춤에 한정되면서 퇴폐적이고 향락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춤추는 행위는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곤 하지만 이를 부적절한 행위로 낙인찍고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국주의 일본과 냉전 시대 독재 정권입니다.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¹⁹⁵⁴이 담아낸 댄스에 대한 통념, 즉 ‘상류 가정의 순진한 영양이나 유한마담들이 불량한 남자 댄스교사에 속아 풍기문란 사건을 일으킨다’는 각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광복 후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며 댄스를 부정적으로 채색했습니다. 대낮에 남녀가 모여 춤춘다고 경찰서에 잡혀가는 뉴스가 나오는 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의 댄서는 바람둥이나 사기꾼과 동일하게 취급되었지요.

이처럼 폄하된 기생이나 댄서와 차별화된 이들이 등장했으니 바로 ‘무용인’ 혹은 ‘무용가’입니다. ‘무용’은 20세기 초 일본에서 유입된 신조어인 ‘신무용’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낡고



뒤쳐진 전통춤과 유흥적이고 퇴폐적인
댄스의 통념과는 다른, 새롭고 진보한
예술춤을 의미했습니다. 엘리트
출신으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최승희와 조택원을 비롯하여 스스로를
지식인이자 예술가로 여긴 춤꾼들이
내세운 단어입니다.

무용은 확실히 춤과 춤꾼의 사회적
지위를 높였습니다. 무용가들은
앞다투어 무용연구소를 세우고
무용발표회를 올렸습니다. 전국에
무용학원과 무용과가 들어섰습니다.
제가 무용학원에 다니고 무용과에
입학한 것도 그 결과입니다. 무용가가





사회에서 선망받는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숨기고 싶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용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기생과 댄서의 그림자를 애써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교춤의 유행이 한풀 꺾인 후 1990년대에 주로 댄서라 호명되는 이들은 하위문화로서의 힙합 댄서나 대중가요산업의 백댄서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철역에서, 공원에서,

클럽에서, 방송국에서 춤추던 이들은 곧 날라리, 탄파라, 문제아로 폄하되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무용의 테두리 너머에 있던 댄스에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찌면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댄스와 나의 무용이 같은 것이라면 나도 같이 평가절하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세상이 변하여 지금은 댄서

전성시대입니다. 댄서는 국가를 빛내는 영웅이자 문화산업을 이끄는 크리에이터, 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대한민국 서열 1위를 넘어 글로벌 서열 1위”를 노리는 댄서들을 위한 “글로벌 K-댄스의 성지”를 자칭했습니다. 과연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를 댄스로 끌어들이며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댄서라는 직업을 등재시킨 것을 비롯해서요. 이 글로벌한 규모의 자부심과 성과 앞에서 그동안 댄서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온 이들은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트리트 댄스』²⁰¹²의 저자 김상우는 책머리에서 국내 초창기 스트리트댄스 크루인 고릴라 크루의 단장이었던 고 전나마 씨에게 책을 헌정하며 그가 “춤으로 생계유지하는 것, 자녀가 부모 직업이 ‘댄서’임을 당당하게 말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이 달라졌지만, 이 변화를 미처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떠난 이가 눈에 밝힌 것입니다.

댄서라는 직업이 포털사이트 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댄서들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댄서들이 스스로를 댄서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기생이 오늘날 ‘예인’으로 순화되어 불리곤 하는 것과는 달리, 앞서 인정받은 무용인이라는 용어에 합류하는 대신, 댄서는 댄서를 고수합니다. 이때의 댄서는 무용인의 번역어나 추상적인 국제 공용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 대중춤의 변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낙인찍힌 이들이 낙인을

긍정적으로 재전유했을 때 낙인은 선언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육재비’

김보나 칼럼니스트

삼현육각. 국악 전공자에게겐 더없이 익숙한 표현일 테지만 그렇지 않거나 전통음악에 크게 관심이 없다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단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삼현육각은 전통음악에서의 특정 악기 편성이나 악곡을 의미한다. 서양음악에서 바이올린 2대, 비올라 1대, 첼로 1대를 가리켜 ‘현악 4중주’라 일컫는 것처럼 국악에도 주요하게 활용되는 악기 편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현육각이다. 단어를 뜯어보면 세 가지 현악기(삼현)와 여섯 가지 관악기(육각)를 뜻하는데, 신라 시대 ‘삼현삼죽’이라 하여 세 가지 현악기와 세 가지 관악기를 이르는 악기 편성에서 비롯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삼현육각의 세 현악기와 여섯 관악기는 무엇일까. 대부분 전통음악 개론서에서 밝히길, 삼현은 가야금·거문고·비파였을 것으로 추측하나 현재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고, 여섯 개의 관악기는 향피리 2대, 대금 1대, 해금 1대, 장구 1대, 북 1대를 의미한다. 삼현육각이라고 불리는 악기 편성은 결국 ‘육각’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 악기 구성을 뜻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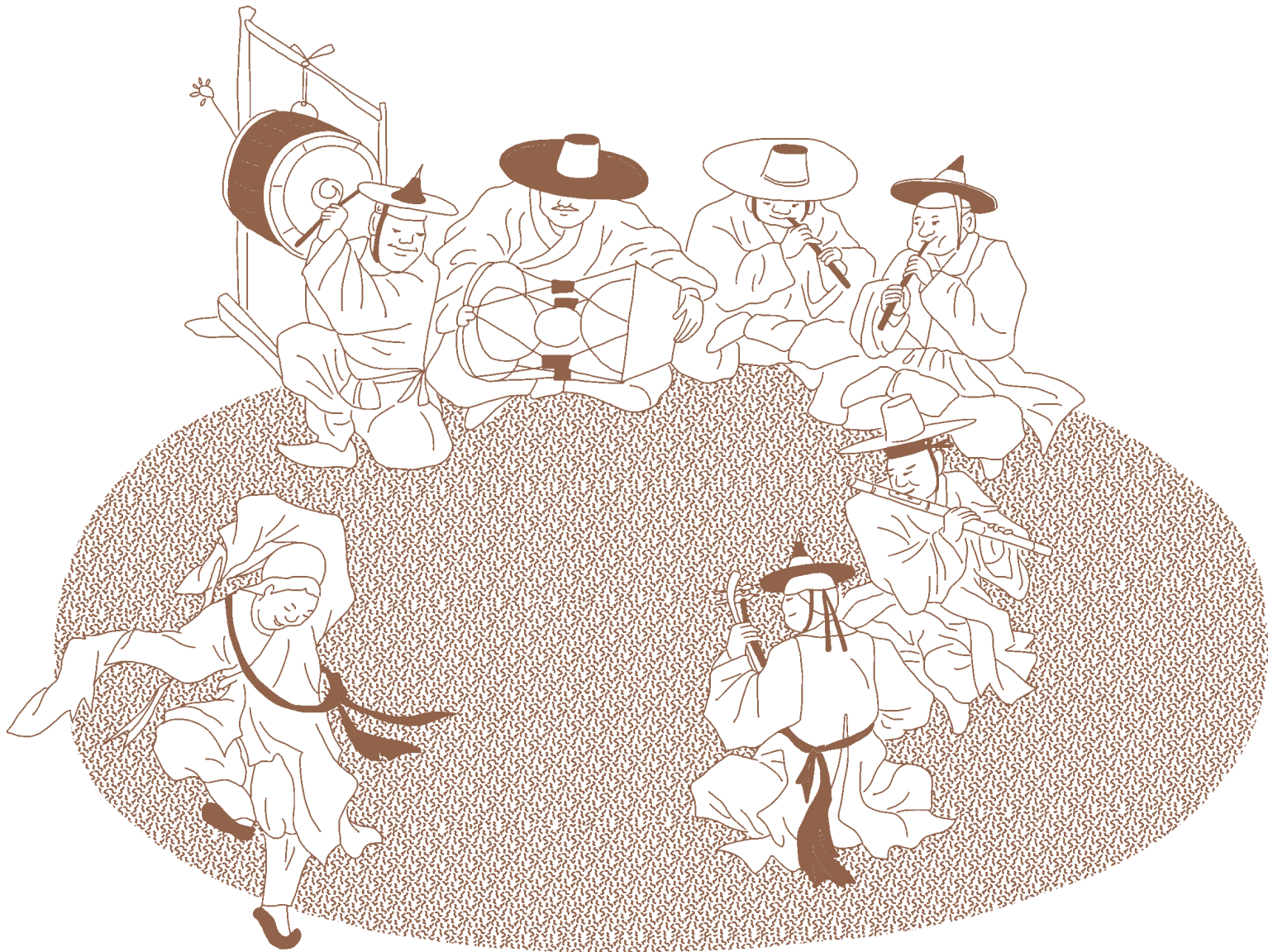
“삼현육각 잡히고 시집 간 사람 잘 산 데 없다”는 말이 있듯 요란하고 화려한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삼현육각이었는데, 1929년 한 잡지에서조차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흔히 오월 단오가 되면 청새 흥새 같은 관기들이 관찰부 선화당 뒤울안의 버드나무에 추천을 매고 건너뛰며 삼현육각을 잡히고 놀았다.”

『별건곤』 제20호(1929년 4월 1일)

의외의 사실은, 신라 시대부터 발생했다고 보는 전통이니만큼 관련된 문헌 기록도 역시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삼현육각’에 관한 온전한 기록이 1920년대 이후부터 발견된다는 점이다. 조선 시대 후기 문헌에도 ‘삼현’에 관한 것만 기록돼 있고, ‘육각’에 관한 기록은 있더라도 의미가 조금 달리 해석돼 온전히 삼현육각에 관한 기록이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편성에 대한 기원을 신라 시대에서 찾고, 조선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했을 것으로 확신하는 것은 문헌 기록은 없어도 그림에 존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삼현육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 화첩에 수록된 <무동>을 꼽을 수 있다. 화폭 왼편 하단에 무동이 힘찬 몸짓으로 옷자락을 펼치며 춤을 추고 있고 오른편에 악사들이 반원 형태로 둘러앉아 반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북(1명)-장구(1명)-



피리(2명)-대금(1명)-해금(1명) 순으로 여섯 명의 악사가 묘사돼 있는데, 엉락없는 삼현육각 편성이다. 민간에서는 이를 가리켜 육잡이 또는 육재비 연주라 부르기도 했다. 이 외에 김홍도의 <평안감사향연도>, 신윤복의 <쌍검대무> 등에서도 삼현육각 편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삼현육각의 존재뿐만이 아니다. 삼현육각의 쓰임 또한 그림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안감사향연도>에서는 연회의 주변이 상을 받기 전에 연주하는 거상악의 편성으로 삼현육각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동>과 <쌍검대무>에서는 무악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무악은 승무나 살풀이춤과 같은 춤의 반주음악을 말하는데, 이때 '염불풍류'라는 일종의 모음곡이 연주된다. 그리고 염불풍류를 춤 없이 감상곡으로 연주할 때 다시 '대풍류'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삼현육각의

사전적 의미와 연결해볼 수 있다. 사전에 따르면 ‘삼현육각’은 “피리가 둘, 대금, 해금, 장구, 북이 각각 하나씩 편성되는 풍류. 감상의 성격을 떨 때는 ‘대풍류’라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완벽히 같은 악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관현악 중심의 동일 계열 악곡이다. 이 외에도 삼현육각은 굿이나 불교 의식에서 행악의 한 형태로 연주되기도 한다. 즉 삼현육각은 거상악·무악·행악으로 연주되며, 감상음악인 ‘대풍류’이기도 한 것이다.

더 세부로 살펴보고 싶지만, 삼현육각은 꽤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용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무악만 하더라도 궁중 정재뿐만 아니라 민간의 살풀이춤·탈춤 등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승 과정이나 연주 용도가 지역에 따라 음계나 리듬, 악곡 구성 등이 저마다 다르게 발전해 지금에 이르기에, 지면상 다수의 전통예술에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전통음악 요소로만 밝힌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1985년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나주시(1986년), 전주시(2011년), 서울특별시(2014년)의 삼현육각이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연구와 보존 측면에서 지역별 삼현육각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까진 어렵겠지만, 해서 지역의 삼현육각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뤄지면서 연구 영역도 비교적 확장되고 있다.

실제 음악으로 돌아가서, 최근에는 삼현육각이 거상악이나 행악으로 쓰이기보다 무악 또는 감상곡으로

연주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관악기 중심의 관악영산회상이다. ‘바른 정치가 만방에 퍼진다’라는 뜻의 표정만방지국, 그리고 대풍류라는 아명으로 불리는 이 곡은 영산회상의 한 갈래다. 상령산-중령산-세령산-가락덜이-삼현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으로 여덟 곡이 이어지는 모음곡이며, 삼현도드리 뒤에 하현도드리를 붙여 아홉 곡이 이어지는 현악 중심의 ‘현악영산회상’과 비교해볼 수 있다. 더불어 불교 찬가인 ‘영산회상불보살’을 노래하고 춤과 박 그리고 대고를 쳤다는 『악학궤범』¹⁴⁹³의 기록으로 영산회상의 역사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노래는 기록으로만 남고 음악만 이어져 전통음악의 주요한 기악곡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전통음악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립국악원은 봄을 맞아 3월 28일과 29일 정악단 정기 공연 〈영산회상: 그 깊은 울림〉을 연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이 바로 영산회상이다. 부제는 ‘그 깊은 울림’이라고 붙였다. 공명통을 울려서 연주하는 관악기의 울림과 깊은 마음. 연지^{淵智}를 울리는 악곡을 연주하는 무대에 가히 어울리는 제목이다. 전통음악의 주요한 요소로 꼽히는 삼현육각을 맛보고 싶다면 관악영산회상으로 갈증을 달래보아도 좋지 않을까. 언제 어디서나 쓰임에 따라 자리를 빛내는 삼현육각의 한 면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EPILOGUE

20주년이 된 재단과 함께한 시간이 무려 14년이 됐네요. 서울연극센터로 첫 출근하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재단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 온 만큼 저도 그렇게 성장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재단을 응원하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EPILOGUE

20년이라는 시간의 깊이와 무게를 실감한 달이다. 모자이크의 한 조각 한 조각을 함께 채워온 재단 안팎의 모든 이를 기억하는 20주년이기를.

전민정 편집위원

CONTRIBUTOR

20주년 특별 호에 인터뷰이로 모신 최태지 전 단장님. 빠르게 성장한 한국 발레사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에 또 10년 뒤에 바라보는 서울문화재단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하게 됩니다.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문화+서울], 새 제호로 인사드립니다

문화예술 종합 월간지 [문화+서울]이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2024년 3월호부터 새로운 제호를 적용합니다. 2008년부터 16년간 서예가 강병인의 캘리그래피 제호를 사용했던 잡지에 변화의 바람이刮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타입의 서체를 결합한 새 제호는 개별의 고유성을 가진 '문화'와 '서울'이 결합해 서울의 문화예술 현장을 들여다보는 창이 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BEST WISHES

저는 매일이나 편지의 마무리로 <오늘 '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라는 문장을 자주 씁니다.

이 문장에 존재하는 보조사 '-도'가 상대방의 어제와 오늘이 모두 무탈하기를 바라는 제 마음과 소망을 더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간 서울문화재단의 20년 중에는 편안하지 못한 날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연결되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많은 분들께 [문화+서울]을 통해 짧게나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도' 서울문화재단의 내일을 잘 부탁드립니다!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서울문화예술 국제포럼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

2024. 3. 21(목) 10:30
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

